

제3차

한의학육성발전 종합계획

2016~2020

MINISTRY OF HEALTH &
WELFARE

www.mohw.go.kr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0254-13

제3차
한의학육성발전
종합계획 2016~2020

MINISTRY OF HEALTH &
WELFARE



보건복지부
관계부처합동

제1장

수립배경과 성과

I.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수립 배경 및 추진체계	08
1.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연혁	08
2.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수립경과	09
3. 추진체계 및 관계부처와 관계	10
II.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11~'15) 주요 내용	11
1. 한의약 의료서비스 선진화	11
2. 한약(재) 신속대응 안전망 구축	14
3. 한의약 연구개발 핵심기술 확보	16
4. 한의약 산업 발전 가속화 및 글로벌화	18
5. 한의약 연구 성과	20

제2장

비전과 전략

I. 국내·외 현황	22
1. 전통의약·보완대체의학의 미래전망 및 한의약 현황	22
2. 주요국의 보완대체의학 육성 현황	27
3.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의 중점추진 방향	41
II.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의 비전과 추진과제	42
1. 제3차 한의약육성종합계획의 비전 및 목표	42
2. 목표별 추진과제	43

제3장

분야별 세부계획

I.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보급을 통한 근거강화 및 신뢰도 제고	46
1.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46
2.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보급·확산	53
II. 보장성 강화 및 공공의료 확대를 통한 한의학 접근성 제고	58
3. 한의학 보장성 강화	58
4. 한의학 공공보건의료 강화	65
III. 기술혁신과 융합을 통한 한의학 산업 육성	69
5. 한약(재) 품질관리 및 유통체계 강화	69
6. 기술혁신을 통한 한의학 상품화 지원	78
7. 한의학 R&D 지원	84
IV. 선진인프라 구축 및 국제경쟁력 강화	91
8. 한의학발전 인프라 마련	91
9. 한의학 국제경쟁력 강화	99

부록

p.106

표목차

[표 1] 한의약 의료서비스 선진화 세부과제 추진 현황	12
[표 2] 한약(재) 신속대응 안전망 구축 세부과제 추진 현황	15
[표 3] 한의약 연구개발 핵심기술 확보 세부과제 추진 현황	17
[표 4] 한의약 산업 발전가속화 및 글로벌화 세부과제 추진 현황	19
[표 5] 연도별 한국한의학연구원 연구성과	20
[표 6] 연도별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연구성과	20
[표 7] 한의약산업 시장규모	26
[표 8] 한의약 관련 응용제품 시장규모	26
[표 9] 중국의 중의약 분야 주요 국가계획	27
[표 10] 연도별 중의약 R&D 투자 연구비 현황	30
[표 11] EUROCAM의 중점 연구 영역	36
[표 12] 주요국 보완대체의학 동향 요약	40
[표 13] 목표별 추진과제	43
[표 14] 한의약 근거창출 임상연구 지원 현황	50
[표 15] 연차별 투자 및 추진계획	51
[표 16] 개발된 한의임상진료지침	53
[표 17] 양·한방 협진 다빈도 상병	62
[표 18] 한의약 공공보건소사업 수행현황	65
[표 19] 아시아 주요 국가의 천연물약품 시장 규모 및 건강보험 급여 현황	78
[표 20] 한약제제 생산 및 시장규모	79
[표 21] 건강보험 진료비 및 한의 진료비 비중	79
[표 22] 한의 전문의 인력 배출 현황	91

그림목차

[그림 1] 추진경과	09
[그림 2] 추진체계	10
[그림 3] 계획별 관계부처	10
[그림 4] 세계와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 추이	22
[그림 5] OECD 국가의 의료비 증가 추이	23
[그림 6] 세계보완대체의학시장의 현황 및 전망	24
[그림 7] 미국 국립보완통합의학연구소의 연간 예산변화	33
[그림 8] 일본 내 한약처방 시장규모	38
[그림 9] '09 ~'14년 일본 완제 Herbal 제품 매출액	39
[그림 10] 제3차 한의학육성발전종합계획의 비전 및 목표	42
[그림 11] 한의의료 신뢰수준	46
[그림 12] 한의의료 치료효과 인식수준	46
[그림 13] 한의약 치료효과 관련 실태조사	49
[그림 14]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개발사업단 추진체계(안)	56
[그림 15] 양·한방 협진 현황	61
[그림 16] 중·서의결합병원 및 중·서의결합문진부 개설현황	63
[그림 17] 통합사업	65
[그림 18]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추진경과	66
[그림 19] 약용작물 재배 및 생산 현황	71
[그림 20] 한약재 수입현황	71
[그림 21] 한약재 생산·유통 규모 추정	75
[그림 22] 한약 관련 이슈 현황	75
[그림 23] 원내·외 탕전 현황	76
[그림 24] 탕전실 조제 제형	76
[그림 25] 전통지식, 민간전승물, 유전자원의 범위	94
[그림 26] ISO/TC 249 표준화 추진 현황	102



수립배경과 성과

- I.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수립 배경 및 추진체계
- II.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11~'15) 주요 내용



I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수립 배경 및 추진체계

1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연혁

● 한의약육성법* 제정('03)

* 한의약육성법 제6조(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의약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
(한의약육성법 제6조)

● 제1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05~'10)

- 한의약의 과학화·산업화·세계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① 한방의료 선진화, ② 한약관리의 강화, ③ 한의약의 산업화, ④ 한방 R&D 혁신의 4개 분야와 12개 정책, 38개 과제로 구성

●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1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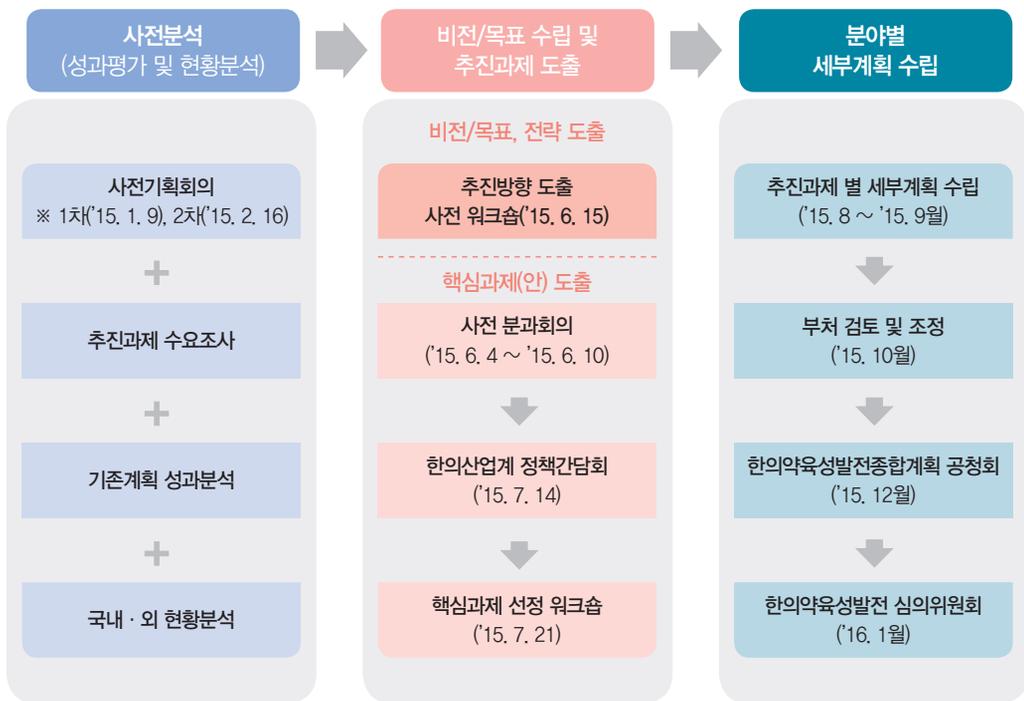
- 한의약산업 10조원 시장 육성을 중점 목표로 하여 ① 한의약 의료서비스 선진화, ② 한약(재) 품질관리 체계 선진화, ③ 한의약 연구개발 핵심기술 확보, ④ 한의약 산업 발전 가속화 및 글로벌화의 4개 분야와 26 과제, 89개 세부과제로 구성

●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16~'20)

-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및 한의약 건강보험 급여 확대 등 중점과제를 포함하여 ① 근거 강화 및 신뢰도 제고, ② 한의약 접근성 제고, ③ 한의약 산업 육성, ④ 선진 인프라 구축 및 국제 경쟁력 강화의 4대 목표, 9대 과제, 95개 세부과제로 구성

2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수립경과

- 자문위원회*(15. 4월) 구성·운영
* 전체 한의계를 대표하는 한의약 관련 기관·단체·산업계 및 학계 등 총 50여명으로 구성
- 비전, 4대 목표 및 과제 설정 워크숍* 개최(15. 6~7월)
* 2015. 6. 15. 한국한의약연구원. 자문위원단 46인 참석
- 세부계획 수립 및 부처 의견 조회(15. 8~10월)
-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공청회 개최(15. 12월)
-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심의·의결(16. 1월)



[그림 1] 추진경과



3 추진체계 및 관계부처와 관계

■ 제3차 계획 수립 추진체계



[그림 2] 추진체계

■ 계획별 관계부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 보급을 통한 근거 강화 및 신뢰도 제고	보장성 강화 및 공공의료 확대를 통한 한의학 접근성 제고	기술혁신과 융합을 통한 한의학 산업 육성	선진 인프라 구축 및 국제 경쟁력 강화
1.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보건복지부	3. 한의학 보장성 강화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5. 한약(재)품질관리 및 유통 체계강화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8. 한의학 발전 인프라 마련 보건복지부 특허청
2.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보급 · 확산 보건복지부	4. 한의학 공공보건의료 강화 보건복지부	6. 기술혁신을 통한 한의학 상품 지원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9. 한의학 국제경쟁력 강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7. 한의학 R&D 지원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그림 3] 계획별 관계부처

II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11~'15) 주요 내용

◆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총 102개 과제 중 92개 과제 추진

1 한의약 의료서비스 선진화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한의약 역할 강화

- 한방난임치료, 한의약 만성질환 관리제도 등의 도입을 위한 타당성 연구 실시

■ 한의약 글로벌 시장진입을 위한 기반조성

-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를 중심으로 특집방송 제작, 국제의료관광컨퍼런스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해외시장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실시
- 동의보감 4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개최('13년)

■ 한의약 의료 서비스 접근성 강화 및 질적수준 제고

- 제2기 한방전문병원 지정('14년) 및 병원급 한의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제 실시('14년)
- 대구와 전남에 통합의료센터 건립

■ 한의약 공공보건의료 역할강화

- 한방 HUB 보건소는 '13년부터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이관
- 전국 130개 보건소 한의약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13년) 및 전국 944개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한의과 진료실 운영('14년)



[표 1] 한의약 의료서비스 선진화 세부과제 추진 현황

중점추진과제	소관부처	세부과제	추진 현황
[과제1]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한의약 역할강화	복지부	·표준적 난임 치료 진료지침 정립	추진
	복지부	·한방난임시술에 대해 재정지원	미추진
	복지부, 미래부	·암, 뇌혈관 질환 등에 대한 한의약 임상능력 제고	추진
	복지부	·한방 선택의원제 도입검토	미추진
	복지부	·한방병원 유희병상 요양병상 활용	미추진
[과제2] 한의약 글로벌 시장진입을 위한 기반조성	문체부, 복지부	·해외시장 마케팅 기반확보	추진
	복지부	·한의약 의료관광 특화상품 개발	추진
	문체부, 복지부	·외국인 환자 유치채널 강화	추진
	복지부	·한의약 의료서비스 제공 확대	추진
	복지부	·한방의료봉사 활성화 추진	추진
	복지부	·한의약의 우수성 홍보 추진	추진
	복지부	·국내 외국인 환자 한방진료 활성화	종료
	복지부	·WHO 및 WPRO내 전문인력 진출 확대	추진
	복지부	·WHO 협력센터 지정	종료
	복지부	·WHO 전통의학 표준화 사업 지원	추진
	통일부, 복지부	·용어표준화 및 자원공동개발 등 남북교류 추진	미추진
	산통부, 복지부	·국제표준화(ISO)기구 활동 강화	추진
	복지부	·한·중 동양의학협력조정위원회 확대 발전	추진
	[과제3] 한의약 의료 서비스 접근성 강화 및 질적수준 제고	복지부	·한방전문병원제도 추진
복지부		·병원급 한방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제 실시	추진
복지부		·전문병원 지정-의료기관 인증 연계	추진
복지부		·협진표준모델개발·보급 및 협진인력 양성	추진
복지부		·별도의 협진 지원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발	지연
복지부		·비용·효과성 측정을 통한 합리적 협진프로그램 도입 및 정보체계 구축	추진
복지부		·정부와 민간의 연계를 통한 교육·홍보의 효과적 추진	추진
복지부		·협진의료기관에 대한 질 평가제도 도입·실시	추진
복지부		·양·한방 협진에 대한 의료분쟁조정제도 마련	종료
복지부		·통합의료센터 건립 지원	추진
복지부		·한의약육성발전심의회위원회 운영 내실화	추진
복지부		·한의약 제도개선 TF 구성·운영 및 제도개선 추진	추진

중점추진과제	소관부처	세부과제	추진 현황
[과제4] 한의약 공공보건 의 료 역할강화	복지부	• 국립한방병원 내 한방공공보건의료사업 기능 강화	지연
	복지부	• 공공의료 정책 개발 및 주요사업 시행	추진
	미래부, 복지부	• 국립한방병원 내 한방임상연구센터 지원 강화	미추진
	복지부	• 한방 HUB보건소 확대	종료
	복지부	• 보건소 한방기능 보강 지원	종료
	복지부	• 한의약 지역보건서비스 강화	추진

※ 주: 지연과제는 제3차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 반영





2 한약(재) 신속대응 안전망 구축

■ 한약(재) 유통체계 선진화

- 한약규격품 유통·사용 의무화('12년),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 도입('12년)
- GMP 도입으로 한약 이력추적관리제 도입을 위한 시행근거 마련은 중단

■ 한약안전관리체계 과학화

- 「대한민국약전(KP)」,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KHP)」개정(안) 마련('13. 4월), KP 제10개정('12. 12월), KHP 제4개정('12. 12월), 「생약 등의 잔류·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 폐지('12. 12월) 등을 통해 한약의 품질규격 개선
-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도 의무적용('12년) 실시



[표 2] 한약(재) 신속대응 안전망 구축 세부과제 추진 현황

중점추진과제	소관부처	세부과제	추진 현황
[과제1] 한약(재) 유통체계 선진화	복지부	• 한약 이력추적관리제 도입 및 시행근거 마련	추진
	복지부	• 이력추적관리시스템 적용	추진
	복지부	• 이력추적관리시스템 운영 · 교육 및 홍보	추진
	복지부	• 한약판매업소 단순 가공포장 판매행위 금지	추진
	복지부	• 한약제조업자의 제조된 한약의 한약도매상을 통한 공급 의무화	추진
	복지부	• 한방의료기관 규격품 미사용시 처벌강화	추진
	농식품부, 복지부	• 국산한약재 제조업 진입 완화	종료
	농진청	• 특용작물 생산 · 유통 연구 등	추진
	복지부	• 표시방법 및 표시대상 마련	추진
	복지부	• 최종소비처 원산지 표시제 시범사업 실시	추진
	복지부	• 최종소비처 원산지 표시제 제도화 방안 마련	추진
	복지부	• 한약(재) 직거래 인프라 구축	종료
	농식품부, 복지부	• 지원방식 및 부처간 협력	종료
	복지부	• 수급조절제도 종합관리	추진
	복지부	• 한약재수급조정위원회 운영 내실화 추진	추진
[과제2] 한약안전관리체계 과학화	식약처	• 한약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수행	추진
	식약처	• 품목별 합리적 위해기준 마련	종료
	식약처	• 한약 규격기준의 국제조화	추진
	식약처	• 한약재 중금속 기준 합리화	종료
	미래부	• 한의본초 활용기반 구축사업	종료
	농진청	• 우수농산물관리(GAP) 기술개발	추진
	식약처	• 규격품 GMP · GSP 제도 도입	추진
	식약처	• GMP · GSP 교육 · 홍보	추진



3 한의약 연구개발 핵심기술 확보

■ 한의약 연구개발 역량 강화

- 표준한방처방 근거중심 구축사업, 한의약 의료기술 및 의료기기 표준화 기반 구축 등으로 한의 기술 표준체계 지속적 구축
-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임상인프라사업, 양·한방융합기반기술개발 사업 등을 통해 임상 연구 근거 확보
- 한약제제에 대한 임상시험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제품화 성공('12년 레일라정)
- 한약의 발효기술 확보를 위한 생물전환이용 한방처방 효능 강화, 한의약 의료기기 제품화, 특용작물 고부가 기능성 소재 발굴에 지속적 투자

■ 한의약 연구개발 자원인프라 확충

- 토종자원의 한약재 기반구축사업이 시작('13년 98품목 등록, 36품목 지표물질 분리), 전통의학 지능형 온톨로지 구축('13년)
- 침구경락과학센터, 암예방소재연구센터, 한방체액조절연구센터 등 한의약 선도기술 연구 센터 지속적 지정·육성

[표 3] 한의약 연구개발 핵심기술 확보 세부과제 추진 현황

중점추진과제	소관부처	세부과제	추진 현황
[과제1] 한의약 연구개발 역량 강화	복지부	• 한약 및 한약제제 약효 표준화	추진
	미래부	• 표준한방처방 근거중심 구축사업	추진
	미래부	• 침구 표준치료기술 개발	종료
	미래부	• 뇌혈관 질환의 한의변증지표 표준화 기반 구축	종료
	산통부	• 한의약 의료기술 및 의료기기 표준화 기반 구축	추진
	복지부	• 한의병증, 진단 및 한약치료기술 객관화	추진
	복지부	• 임상연구 수행을 통한 안전성·유효성 확보	추진
	미래부	• 체질정보수집체계 구축	추진
	미래부	• 전인시스템 조절을 통한 고혈압 위험군 예방관리기술 개발	추진
	농진청	• 특용작물 기능성분 임상연구 추진	추진
	복지부	• 한약제제 개발	추진
	미래부	• 생물전환이용 한방처방 효능강화	추진
	복지부	• 경락치료법과 기능진단 기술개발	종료
	복지부, 산통부	• 세계적 한의약 의료기기 제품화	추진
	농식품부, 복지부	•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및 천연의약 신소재사업 추진	추진
	미래부	• 생체에너지대사 시스템 기반 노화조절 한약개발	추진
	농진청	• 특용작물 고부가 기능성 소재 발굴	추진
	[과제2] 한의약 연구개발 지원인프라 확충	복지부	• 한방임상연구 기반 강화
미래부, 농진청		• 한의약 지식정보자원 DB화 및 전달체계 구축	추진
미래부		•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	추진
복지부		• 한의약 신기술개발 협동연구 기획 지원	종료
복지부		• 천연물 유효성분 물질은행 구축	추진
복지부		• 한의약 임상연구 인력양성프로젝트 기획 추진	추진
복지부		• 국제공동연구사업을 통한 해외 우수연구자 활용	추진
미래부		• 한의약 임상연구 플랫폼 구축	미추진



4 한의약 산업 발전 가속화 및 글로벌화

■ 한의약 광역클러스터 조성지원

- 한약진흥재단 설치 기반 조성('16년 출범)
- 세명대에 한방바이오산업임상지원센터('11년)를 지원하는 등 각 지역의 지역 혁신센터 (RIC) 확대
- 충북테크노파크바이오센터 등 한의약 특화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RIS) 지속 지원

■ 한의약 산업활성화 지원

-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활성화 방안 도모
- 수입의존 약용작물에 대한 신품종 육성 등 특용작물 재배유통 활성화
- 사용상의 주의사항 표준기재안 마련('14년), 단미엑스혼합제제의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표준기재(안) 마련
- 한방약초테마공원 조성(산청), 사상의학 체험랜드(장흥), 한방명의촌 및 제천한방자연치유 센터(제천), 한방약초재배공원(순천) 등 한의약과 연계한 지자체 사업 활성화
- 제14회 대한민국 한방엑스포, 영천 한약축제, 대구 약령시 한방문화 축제, 제천한방바이오 박람회 등 지자체 중심의 한의약 축제 개최
-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의 실효성 미흡하여 한의의료기관 대상 다면적 컨설팅, 병원급 대상 해외환자 유치 프로그램 등을 3차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 예정

[표 4] 한의약 산업 발전가속화 및 글로벌화 세부과제 추진 현황

중점추진과제	소관부처	세부과제	과제 상황
[과제1] 한의약 클러스터 구성 지원	복지부, 산통부	·클러스터 조성 지원체계 마련	종료
	복지부	·한방진흥센터 건립	추진
	복지부	·한약진흥재단 설치	추진
	산통부	·한의약 지역혁신센터(RIC) 확대	추진
	산통부	·한의약 특화 지역연구산업진흥사업(RIS) 육성	추진
[과제2] 한의약 산업활성화 지원	농식품부	·한방약초 산업 연계협력 강화	추진
	농식품부, 농진청, 식약처	·우수농산물관리(GAP)인증 활성화	추진
	농식품부, 농진청	·농촌활력증진사업 확대	종료
	복지부, 경상북도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활성화	추진
	산통부, 농진청	·특용작물 재배유통 활성화	추진
	농식품부	·특용작물생산시설현대화사업(신규)	추진
	복지부, 식약처	·해외시장 진출 지원 강화	추진
	복지부	·한방 의료기기 산업 육성	지연
	복지부	·한방 화장품 산업화 촉진	지연
	복지부, 식약처	·한약제제 제품개발 촉진	추진
	복지부, 식약처	·천연물약품 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추진
	농식품부, 문체부, 복지부	·한방관광타운 조성(사상의학 체험랜드 조성)	추진
	문체부, 산통부, 복지부	·문화컨텐츠 및 축제 개최	추진

※ 주: 지연과제는 제3차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 반영



5 한의약 연구 성과

■ 한국한의학연구원 연구 성과

- SCI(E) 등재 논문 건수는 '06~'14년 연평균 28.4% 증가
 - 특허등록 건수는 '06년 이후 연평균 32.4건('05년까지 연평균 10건)
 - '14년 특허출원 건수는 해외출원 26건 포함 90건이며, 특허등록의 경우 15건의 해외특허가 등록되는 등 67건의 특허 등록

[표 5] 연도별 한국한의학연구원 연구성과

(단위: 편, 건)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총계
논 문	SCI(E)	26	50	71	95	108	154	191	169	192	1,056
	비 SCI	88	153	159	153	166	169	180	159	134	1,361
특 허	출원 (국내/국외 (PCT)포함)	22 (17/5)	31 (27/4)	41 (33/8)	68 (58/10)	61 (48/13)	72 (54/18)	86 (54/32)	84 (56/28)	90 (64/26)	555 (411/144)
	등록 (국내/국외)	20 (20/0)	21 (20/1)	13 (13/0)	24 (21/3)	21 (20/1)	39 (36/3)	37 (35/2)	50 (43/7)	67 (52/15)	292 (260/32)

※ 자료: 한국한의학연구원내부자료(한국한의학연구원, 2015)

■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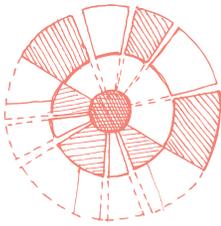
- '09년을 기점으로 논문수와 특허수가 지속적으로 상승
 - 의약품, 의료기기 제품 개발에 대한 임상시험계획승인 건수 증가

[표 6] 연도별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연구성과

(단위: 편, 건)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총계
논 문	SCI	18.5	17	7	32	42	36	22	60	50	284.5
	비 SCI	57	34	28	72	62	36	36	65	40	430
특 허	등록 (국내/국외)	0	10 (10/0)	5 (5/0)	6 (6/0)	10 (9/1)	12 (12/0)	15 (14/1)	15 (13/2)	11 (11/0)	84 (80/4)
	출원 (국내/국외)	16 (14/2)	10.5 (9.5/1)	8.2 (7.2/1)	21 (15/6)	21 (17/4)	12 (12/0)	29 (24/5)	11 (11/0)	19 (17/2)	147.7 (126.7/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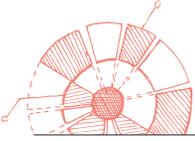
※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내부자료(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5)



제2장 비전과 전략

I. 국내·외 현황

II.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의 비전과 추진과제



I 국내 · 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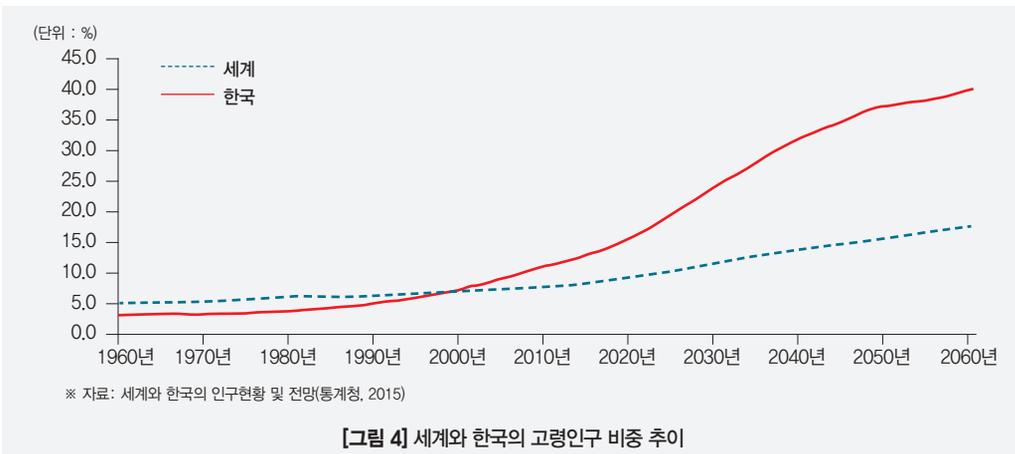
1 전통의학 · 보완대체의학의 미래전망 및 한의학 현황

- ◆ 인구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용 증가로 전통의학 · 보완대체의학 수요 증가
- ◆ 안전한 이용과 시장확보를 위해 선진국은 보완대체의학을 육성 · 관리 · 확대
- ◆ 국내 응용상품 시장은 성장하였으나, 한약제제 등 핵심산업 성장은 미흡
- ◆ 한의학 보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확대를 위한 근거 부족

가 세계 전통의학 · 보완대체의학 전망

■ 인구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세계적으로 의료비 부담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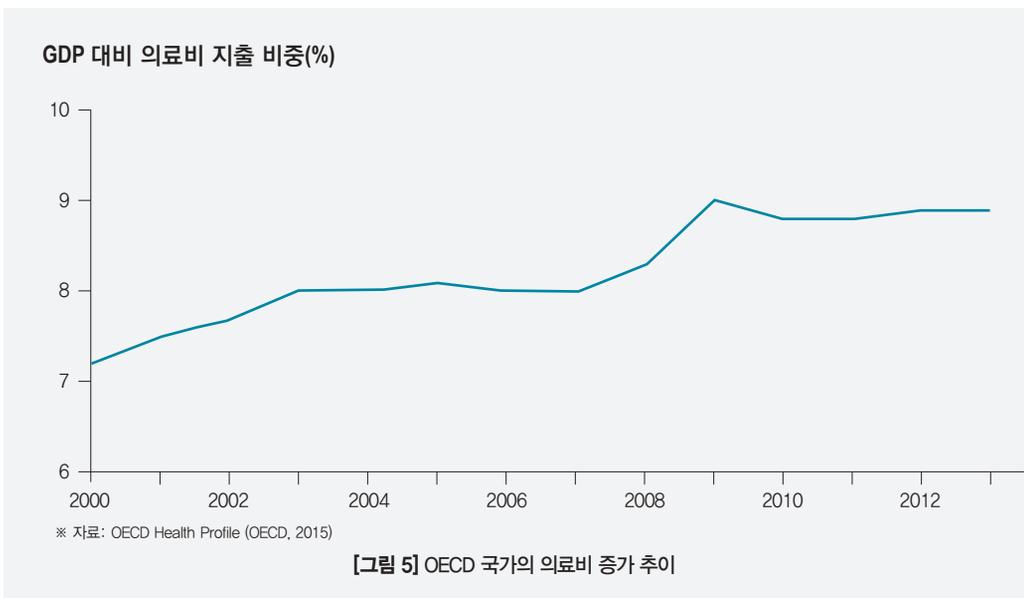
- UN은 2050년 전 세계 인구가 93억 명 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출산율 감소와 수명 연장으로 고령화 사회로 변화
 - 국내 총인구 대비 고령인구 비중은 '15년 13%에서 '50년 약 37%까지 증가 예상



● OECD 국가의 국민의료비는 지속적 증가 추세

- 고령인구 증가로 만성질환자, 치매환자 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국 보건의료 비용이 지속적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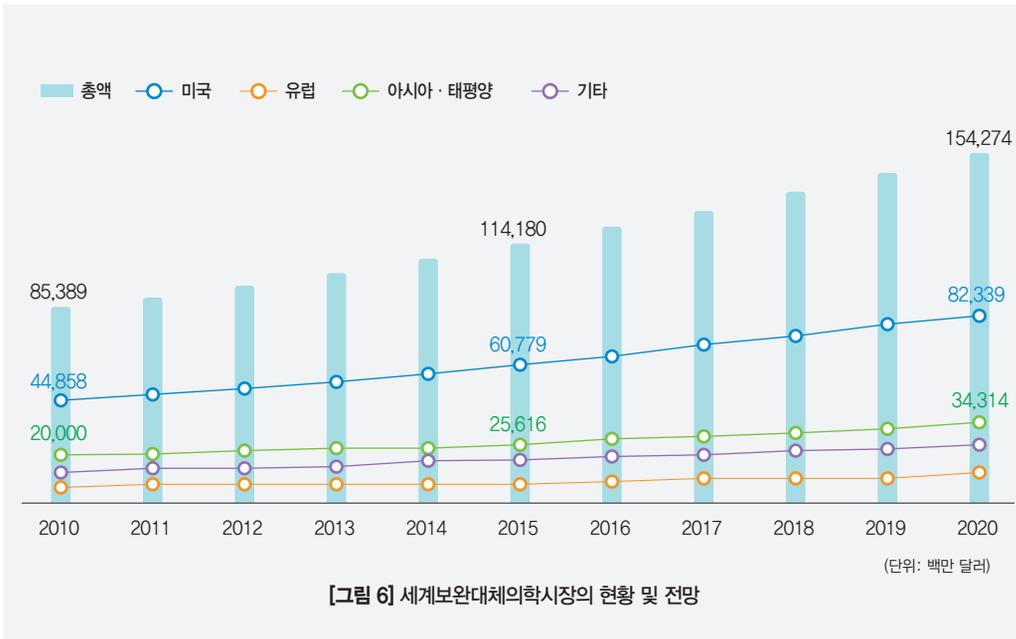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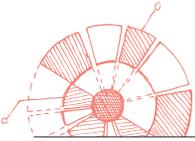
* OECD 국가의 GDP대비 총 의료비용은 2000년 7.2%에서 2012년 8.9%로 증가



■ 전통의학 ·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수요는 높은 의료비용에 대한 대안과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 증대로 지속적으로 증가

● 세계보완대체의학시장은 연평균 5.98% 성장하여 1,141억 8,000만 달러('15년)에서 1,542억 7,400만 달러('20년)로 확대 전망

- 보완대체의학 시장에서 Herbal medicine이 58.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중의학과 동종요법이 각각 29.4%, 8.8%를 차지(Global Industry Analysts (GIA), 2012)



■ WHO, 미국, 중국 등은 국민들의 전통의약·보완대체의학의 안전한 이용과 새로운 시장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로 추진

- WHO는 「전통의약전략 2014-2023」를 통해 전통의약의 체계적 관리 및 발전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WHO, 2014)
- 미국과 중국은 보완대체의학(미국)·중의학(중국)에 대한 5개년 발전계획을 지속적으로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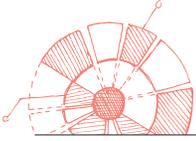
나 국내 한의약 현황

■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표준화된 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응 미비

- **의료기관별 상이한 진료방법과 근거가 부족한 치료법 등은 국민신뢰 저하 및 국제화 걸림돌**
 - ※ 한의진료 불만족요인의 34.8%는 한의사마다 다른 치료방법(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1)
 - 임상연구에 기반한 근거중심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요구 증대
 - 국내 한의학 임상연구는 대부분 연구자 중심의 단편적 연구로 진행, 임상연구결과를 활용한 대규모 근거자료 부족
 - ※ 의과의 경우 127개의 임상진료지침 개발이 완료되었으나, 한의과의 경우 현재 총 15건('15년 9월 기준)

■ 국내 한의약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 추세. 다만, 주요 한약제제 시장 규모는 상대적으로 영세

- **한의학 의료서비스 시장은 '09년 3조 2,730억 원에서 '13년 4조 7,171억 원으로 연평균 9.6% 성장. 그러나 한의학의 건강보험보장성은 매우 낮음**
 - 전체 의료인(醫 · 齒 · 韓 총 15.8만 명) 중 한의사는 14%(2.1만 명)를 차지하나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비중은 4.17%(54.5조 중 2.3조)(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4)
 - ※ 비급여본인부담률: 의원 18.4%, 한의원 30.7% ('13년 기준)
- **의약품용 한약재 및 한약제제는 시장규모 증가 추세이나 주요국에 비해 영세**
 - 의약품용 한약재 시장은 '09년 1,766억 원에서 '13년 2,934억 원으로 연평균 13.5% 성장
 - 한약제제 산업은 생산액 기준으로 '09년 2,186억 원에서 '13년 2,867억 원으로 연평균 7% 성장
 - ※ 중국('12년 21조 원), 일본('13년 1조 5천억 원), 대만('13년 3천억 원)
- **한의 의료기기 시장은 연평균 14.3%로 성장하고 있으나 절대적 시장규모 영세**



[표 7] 한의약산업 시장규모

(단위: 억 원,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성장률(CAGR)
한의약의료서비스*		32,730	40,061	41,270	43,276	47,171	9.6%
한약	의약품용한약재	1,766	2,236	2,460	2,778	2,934	13.5%
	한약제제(생산)	2,186	2,552	2,465	2,817	2,867	7.0%
한의 의료기기		225	190	318	373	384	14.3%
계		36,907	45,039	46,513	49,244	53,356	9.7%

* 주: 한의약의료서비스는 한의의료비 규모로 산정했으며 '13년도는 추정치

※ 자료: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4)

● 한의약과 관련된 응용제품 시장은 인삼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특히, 한방화장품은 매년 고성장

- 인삼 시장규모는 '09년 8,060억 원에서 '13년 7,258억 원으로 시장규모 축소
- 한방화장품은 '09년 1조 1,035억 원에서 '13년 1조 8,590억 원으로 매년 13.9% 성장하여 4년 간 약 두 배 성장

[표 8] 한의약 관련 응용제품 시장규모

(단위: 억 원,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성장률(CAGR)
인삼	8,060	7,998	8,611	9,165	7,258	-2.6%
한방화장품	11,035	13,642	15,169	18,102	18,590	13.9%
한방기능식품 등*	-	-	11,494	-	11,193	-
한방세제	-	-	91	-	55	-
계	19,095	21,640	35,365	27,267	37,096	18.1%

* 한방기능식품 등 = 한방음료 + 식품추출 및 가공 + 건강기능보조용액화식품

※ 자료: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4), 대한화장품협회 내부자료(대한화장품협회, 2015), 한의약산업실태조사(한국한의학연구원, 2012, 2014)

2 주요국의 보완대체의학 육성 현황



정부 주도의 중의약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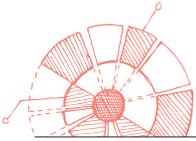
가 주요 정책 및 제도

■ 중의약 육성을 위한 정부 주도의 법률·제도적 지원

- 중의약의 법률적 지위를 보장하는 「중의약법」 입법 추진('13년~)
※ 국무원 통과('15. 12), 전국인민대표대회 심의안건으로 제출
- 「중의약 사업발전 제12차 5개년 계획('11~'15)」등 중의약 발전을 위한 국가계획 지속적 수립·시행(한국한의학연구원, 2012)

[표 9] 중국의 중의약 분야 주요 국가계획

주요 국가 계획	주요내용
중의약사업발전 12.5 계획 ('11~'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경제사회개발 12차 5개년 계획에 근거한 중의약 부문 5개년 계획 • 국민보건의료에 대한 기여 강조, 산업화와 중서의 결합을 가속화하고 세계화 중점 추진
중의약정책체계건설계획 ('15~'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인 중의약 정책체계 구축을 통한 중의약발전에 국가적 역량 집중 예정 • 중의약 관련정책 / 건강서비스 / 중서의결합과 민족의(民族醫) / 과학기술발전 / 전승과 전파 등 11개 항목으로 구성
중의약건강서비스발전계획 ('15~'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의약 부문 13.5 계획으로 국무원 제정 「건강 서비스업 발전에 관한 의견」에 대한 특별규정이자 중의약 관련 첫 국가급 규정 • 중의약 서비스체계 구축을 통한 보건의료 산업 육성 및 중의약 문화와 의료관광 산업의 전문적 육성 강조



주요 국가 계획	주요내용
중의약창신발전계획강요 ('06-'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년 3월 21일, 중국과학기술부, 위생부, 국가중의약관리국, 국가식품약품 감독관리국 등 14개 부문 공동 발표 • 2020년까지의 중국 중의약의 총체적인 발전 목표 제시 • “계승, 혁신, 현대화, 국제화”를 중점 전략목표로 상정
중의약과학연구발전강요 ('06-'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의 · 약학의 과학적인 발전을 제고하여 중국 과학 · 의학 발전 모색 • 중의이론의 발전, 임상효과의 제고, 중약연구 심화 목표
중의약표준화증장기발전 계획강요 ('11-'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의학 국제 표준 제정을 주도하고 중의약의 국제지위와 국제 경쟁력 강화 목표
중의약 국제과학기술협력 계획 ('06-'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시장을 목표로 하는 중의약 상품을 연구개발하기 위해 국제 협력 강화 • 중의약을 중국문화 전파의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

● 특히, 전통의학 국제표준화와 중의약 자원보호관리체계 정립 추진

- 국제표준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에 전통의학 기술위원회 (TC249)¹⁾가 설치된('09년) 이후 중의약 관련 표준화 사업에 적극 참여
- 중의학 관련 전통지식과 중약 자원 보호를 위한 관련 법규 제정

■ 중의약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 「국가기본의료보험약품목록」과 「국가기본의료보험진료항목범위」에 중의약 포함

- 국가기본약품목록에 중약음편(첩약)과 중성약(중약제제) 포함
 - ※ '12년판에는 중성약 203종 포함
- 중약음편(첩약)의 경우 일부 약물을 제외하고 「중국약전」에 수록된 약재는 탕제 비용까지 전액 보험 급여

1) 전통의학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 249): ISO에 설립된 기술위원회 중 하나로 전통의학 국제표준 개발을 목표로 활동

- '13년판 「국가기본의료보험약품목록」에 수록된 중성약은 갑류*(135개)와 을류**(792개)를 합산하여 총 927개 품종 포함

* 갑류: 임상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본약물로 전액 보험 적용

** 을류: 약값 일부 환자 부담

- **기본의료보험 수혜대상자 확대**

- '98년 도시직장인의료보험을 시작으로 '03년 농업종사자, '07년 아동과 노인을 포함한 전국민으로 확대
- 이에 따라, 중의약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험수혜자도 지속 확대

나 산업 현황

■ 세계시장의 58%를 차지하는 Herbal medicine의 중국 내수와 수출 증가 (한국한의학연구원, 2013)

- **중국 중의약 시장은 '07년~'11년까지 연간 30%의 높은 성장 지속**

※ '07년 1,424억 위안 → '11년 4,233억 위안

- 서비스부문 최근 10년간 중의 병원 수와 병상 수 증가(한국한의학연구원,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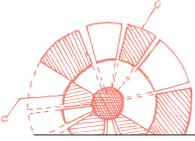
※ '03년~'12년까지 중의 병원 병상 수는 28만 개 → 61만 개로 113% 증가

- 중약부문은 연간 12% 증가하여 '16년 말 7,460억 위안 예상

- **중의약 수출규모는 지속적 증가, 완제품 비중 증가세**

- '10년도 19억 4,400만불 수출로 전년 대비 22.8% 증가

- 원료추출물 비중이 가장 크나(41.9%), 중약완제품 비중이 증가 추세



다 연구개발 현황

■ 중의약 R&D 예산지원 규모는 '03년 대비 '14년 3.8배* 이상 증가

* 중의약 R&D 예산: ('03년) 273,437천 위안 → ('14년) 1,315,245천 위안

[표 10] 연도별 중의약 R&D 투자 연구비 현황

(단위: 천 위안)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중의 국가급 과학연구기관	171,301	115,124	224,461	277,386	339,960	406,405	352,288	431,719	577,822	549,933
성단위급 중의 연구기관	115,095	208,237	124,038	160,667	238,194	341,722	389,943	421,325	552,553	691,157
지역, 시급 중의 연구기관	14,015	14,913	2,631	6,830	26,281	51,781	54,670	58,782	69,084	74,155
합계	300,411	338,274	361,130	454,883	604,435	799,908	796,901	911,826	1,199,459	1,315,245

※ 자료: 全國中醫藥統計彙編(중국중의약관리국, 2015)

- 표준화, 중의우세병종(中醫優勢病種) 등 중의약의 기초연구부터 신약개발까지 종합적인 중의약 관련 연구 지원

- 품질확보를 위해 우수 중약재 품종선택 및 육성, 중약재 생산재배 시스템 구축, 중약재 품질 표준 연구 수행
- 근거기반 연구를 통해 중의가 서의에 비해 강점이 있는 병종을 발굴하고 이를 표준화하여 임상에 활용

※ 중의과학원 선정 우세병종 103개 중 51%인 52개의 전문과 개설이 추진되었으며 최근 연구되고 있는 중의우세병종은 중풍, 요통, 항비 등

- 임상시험 진행 중인 중성약 220개(14.12월 기준)를 대상으로 시장접근성이 높은 제형 개발 (한국한의학연구원, 2015)
 - ※ (제형별) 캡슐, 과립제, 정제, (질환별) 외과, 소화기내과, 호흡기내과
- 중의학 정보 연구기관인 중의과학원 신식연구소(信息研究所)는 중의약 관련 정보 전반을 데이터 베이스화하고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공유
 - ※ 600여종의 의학간행물, 약 32만 권의 도서, 현존하는 중의고서의 60%이상 보유. 40여 개의 분류체계에 따라 110만 개 이상의 데이터베이스(중의학 문헌분석, 검색/중약/처방기법 및 제품 데이터베이스 등) 구축. 관련 자료는 영어 검색이 가능하며²⁾ CD형태로도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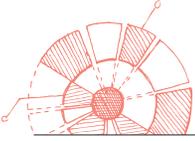
보완대체의학 수요 증가 및 관련 시장 확대

가 주요 정책 및 제도

- 미국은 보완대체의학 제도를 각 주(州)별로 독자적으로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국립 보완통합의학연구소(National Center for Complementary and Integrative Health, NCCIH)에서 5년마다 보완대체의학 발전전략 수립
- 침술 등 보완대체의학 면허보유자*의 시술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면허종류 및 시술범위는 각 주별로 상이

* 대체의학 면허소지자 : 단수 전환 (Acupuncturist, Chiropractor, Naturopathic Doctor)

2) 영문검색 데이터베이스: <http://cowork.cintcm.com/engine/windex.jsp>



- 3차 발전전략(2011-2015)은 심신치료법과 천연물의학 연구를 집중 투자 분야로 선정, 과학적 근거 기반 확보와 임상 및 효능평가 연구 확대

■ 보완대체의학 서비스도 국가건강보험제도 적용 대상으로 포함

- '10년 3월 전 국민대상 건강보험제도(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오바마케어)를 제정하면서 보완대체의학 서비스 비용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세계일보, 2013)

나 산업 현황

■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기존 의료서비스 대신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는 보완대체의학 및 관련 제품의 수요 증가

- 미국 내 전통의학 관련 제품은 천연물 의약품(Botanical Drugs) 형태로 사용되고 있으며 FDA의 Botanical Drugs Guidance에 따라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품목만 유통 가능
- 미국 국민의 30% 이상이 대체의학 경험*, 병원의 40%이상이 진료에 활용**

* NCCIH의 '12년 설문 결과, 설문대상의 33.2%가 보완대체의학을 경험했다고 응답(NHIS,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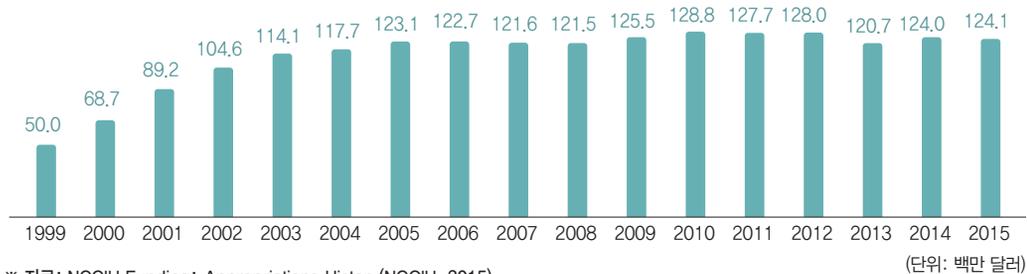
** '10년 미국 내 전체 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42%의 병원이 대체의학을 1개 이상 사용

- 관련 제품을 통한 보완대체의학 활용이 23%, 수요가 높은 시술은 카이로프랙틱, 정골의학(Osteopathic medicine)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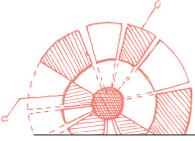
- 보완대체의학 시장규모는 '13년 556억 달러로 '08년 458억 달러 대비 지속 성장(GIA, 2012)
 - 미국의 Herbal medicine 생산량은 세계 생산량의 25.29%로 유럽(26.04%)에 이어 2번째로 많은 비중 차지('13년 기준)
 - 특히 복합허브는 '12년 미국 전체시장 이윤의 33.9% 차지, 허브보충제 및 치료제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

다 연구개발 현황

-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에서 지원한 보완대체의학 관련 연구 개발 예산은 '14년 3억 6,715만 달러, 29개 기관 연구 지원
- 국립보완통합의학연구소(NCCIH)가 27.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국립암센터(National Cancer Institute, NCI)가 19.5%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14년 기준)
- 보완대체의학 치료와 관련 제품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근거 확보, 국민에게 제공 목표
 - 최근 5년 간(2011~2015) 심신의학에 대한 근거 확보와 천연물에 대한 연구에 집중 투자



[그림 7] 미국 국립보완통합의학연구소의 연간 예산변화



보완대체의학의 보건의료체계 편입 추진

가 주요 정책 및 제도

- 유럽은 기존 의료체계 내에서 보완대체의학 활용 빈도가 높으며 유럽전통약초 의약품법령(European Directive on Traditional Herbal Medicinal Products, THMPD)에 따라 전통약초의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 강화 추세(EUROCAM, 2014)
 - 동종요법, 인지의학, 중의학, 아유르베다 등 다양한 보완대체의학이 유럽 내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시술자격 및 시술 범위 규정
 - EU 회원국 중 17개 국가가 보완대체의학 관련 법률을 존재, 보완대체의학 자격을 보유한 전문의는 15만 명, 등록된 비전문의 시술자는 18만 명 이상
 - ※ EU 인구 10만명 당 보완대체의학 시술자는 65명(Provider: 35 non-medical practitioners and 30 physicians)이며 일반의학 시술자는 95명
 - 활용빈도가 높은 Herbal medicine의 안전성과 품질관리를 위해 '04년 유럽전통약초의약품 법령(THMPD) 통과
 - Herbal medicine는 유럽 내 최소 15년을 포함하여 30년 이상의 안전검증기간 충족 필요
 - 영국은 이에 근거하여 '14. 5. 1부터 등록허가를 받지 않은 모든 Herbal medicines 유통 전면 금지(한국한의학연구원, 2015)
 - ※ '14년 영국에서 허가된 300여 종의 Herbal medicine 중 중성약은 불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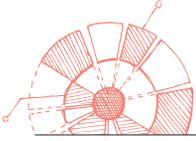
■ EU는 유럽 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공통 규제 추진

- EU는 보완대체의학과 기존 의약품과의 상호작용, 사용자 안전, 보완대체의학 품질확보를 위해 보완대체의학 전반에 대한 통합 규정 마련 예정
 - 기술자의 자격요건, 기술 지침, 교육, 교육기관 및 인증 등 보완대체의학 전반에 대한 내용 포함
- 의사협회와 물리치료사, 조산사, 침술사 등 직역 단체를 중심으로 보완대체의학의 안전, 품질 확보를 위한 요구사항 설정 등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마련 중

나 산업 현황

■ 유럽 Herbal medicine 생산량과 제품 판매액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중 차지 (CAMBRELLA, 2012)

- 유럽의 Herbal medicine 세계시장 점유율은 26.04%이고 매년 증가 추세
 - 허브보충제 및 치료제의 세계시장 점유율도 가장 높은 46.1% 차지*(’12년 기준)
 - * 허브제품 매출액은 172.9억 달러(’09년) → 286.5억 달러(’14년)로 증가
- 유럽 시장규모는 ’12년 330억 달러이며 ’18년 450억 달러로 연평균 5.6% 성장 전망
 - 유럽 국가 중 독일이 가장 큰 시장을 형성, ’18년 시장규모가 202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
 - 독일 외에는 러시아가 빠르게 성장, 프랑스는 ’18년까지 90.7억 달러로 시장 규모 성장 예측



다 연구개발 현황

■ EU는 보완대체의학 연구프로그램인 Horizon 2020*을 통해 보완대체의학 R&D 지원

- 3대 추진과제 중 사회적 과제의 세부사업에 건강, 인구변화, 웰빙을 포함하여 연구 지원

* EU 제8차 프레임워크(FP8), R&D 부문 혁신강화와 연구재정지원 프로그램

- CAMBRELLA*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안전성 및 임상근거확보, 통합모델 개발 등 중점연구 영역 선정, '20년까지 추진 예정

* EU 제7차 프레임워크 : '10년~'12년까지 1,667,439 유로(한화로 24억)를 투자한 12개국 공동 프로젝트로 용어, 제품, 관련 법제도 등 유럽 보완대체의학 전 분야를 망라한 연구

[표 11] EUROCAM의 중점 연구 영역

주요 연구영역	목표
CAM prevalence	To obtain valid, comparable and comprehensive data on prevalence of CAM use
Needs and attitudes of citizens and providers	To address issues that are relevant to the EU public
CAM safety	To allow the risks of CAM to be estimated
Comparative effectiveness research	To support clinical and health care policy decision making with suitable research data
Effects of context and meaning	Understand the extent to which the clinical effects of CAM are due to non-specific treatment effects
Models of CAM integration	To investigate different models of CAM integration

※ 자료: CAM2020(EUROCAM,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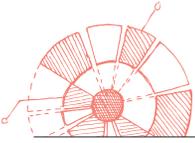
산업계 중심으로 한약제제 중점 육성

가 주요 정책 및 제도

■ 일본은 의료일원화 시스템으로 전통의학 통합 관리

- 일본의 전통의학인 캠포(Kampo)가 기존 의료체계에 통합되면서 의사가 한약과 양약을 함께 처방 가능*
 - * 의사 90%가 환자에게 한방약 처방(Tsumura, 2014)
 - 148개의 한약처방이 건강보험급여 대상이며 900여 개의 한약제제 시판 중(Tsumura, 2012)
- 모든 의과대학이 전통의학 교육을 포함, 일본 동양의학회를 중심으로 인정의(認定医)³⁾와 한방 전문의(漢方専門医) 제도 시행
 - '01년에 의과대학에 교육과정이 포함되기 시작하여 '07년에는 모든 의과대학(80개)의 교육 과정에 전통의학 교육 포함
 - 한방전문의를 '15년 현재 2,193명 배출
- 한약재는 의약품으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본 정부 약제표준을 준수하도록 규정
 - 약전 14판에는 캠포(Kampo)의학에서 사용되는 165가지 약재 포함
 - 대부분의 캠포제품 및 모든 제제에 대한 중금속, 안전성 테스트를 실시, 원료물질부터 제품 까지 약제표준 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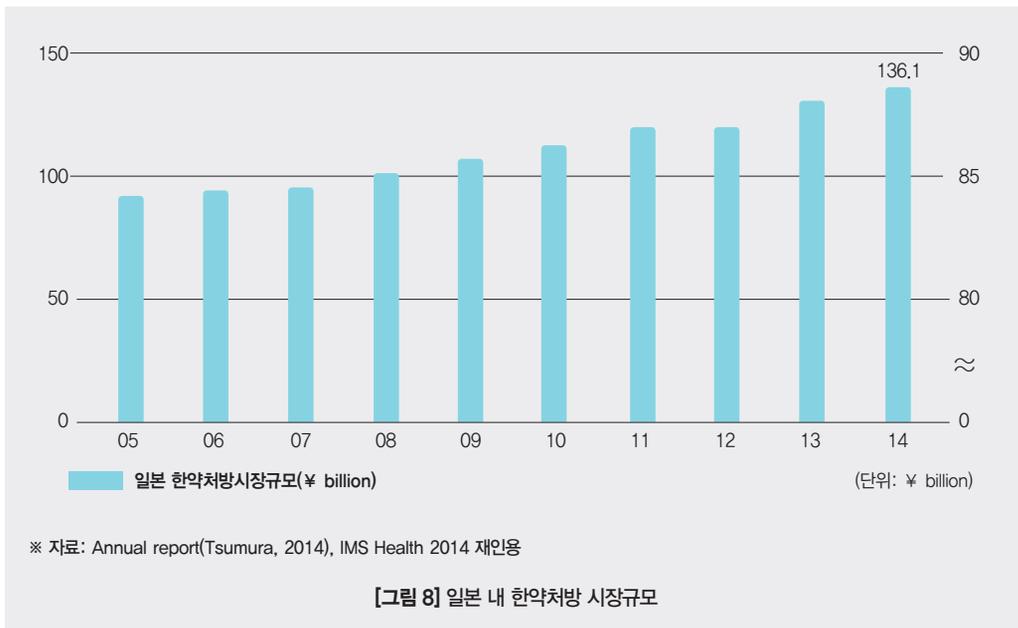
3) 한방을 목표로 하는 의사의 의욕을 향상시키고자 2006년부터 인정의제도를 도입.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는 소정의 기준 충족과 인정의 시험을 통해 인정의가 될 수 있음. 한방전문의(광고 가능)와는 다르며 인정의(광고 불가능)와 한방전문의는 중복으로 취득할 수 없음(일본동양의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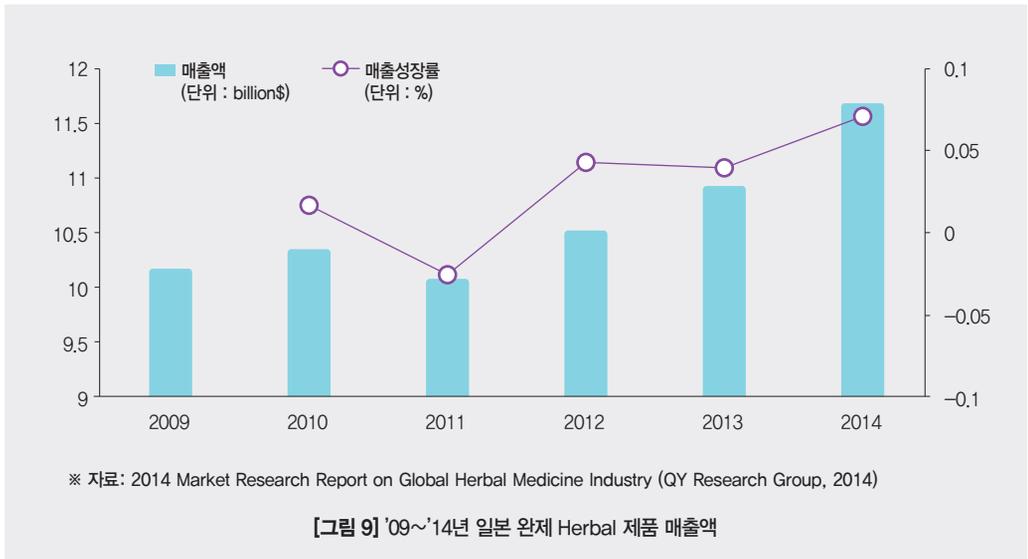
나 산업 현황

■ 원료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나 연구개발을 통한 제품화로 고부가가치 창출

- 일본 내 한약처방 시장규모는 '14년 기준 1,361억 엔이며, 아시아권, 유럽 등으로 관련 제품 수출(Tsumura, 2014)



- 일본의 Herbal medicine 생산량은 전 세계 생산량의 약 11%를 차지, 대표적 한방제제 생산기업인 쓰무라제약은 세계시장의 0.76% 점유(Tsumura, 2014)
 - 전 세계 허브 보충제 및 치료제 시장에서 일본의 비중은 12.5%
 - 일본 허브제품의 판매액은 ('09년) 101.8억 달러 → ('14년) 116.9억 달러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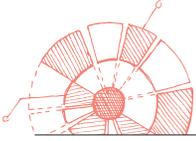
다 연구개발 현황

■ 민간 기업체 중심의 연구개발 진행

- 근거확보를 위한 임상연구와 현대의학 및 캠포의학을 결합한 의약품 개발 추진

■ 기타 재단 관련 연구소 중심으로 지속적 연구개발

- (사)기타사토 연구소 부설 동양의학종합연구소, 도야마 의과대학 화한의학 연구소, (재)일본 한방의학연구소, (재)한방의약연구진흥재단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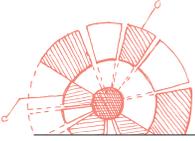
[표 12] 주요국 보완대체의학 동향 요약

국 가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주도의 중의약 육성 • 보험급여 및 시장의 지속적 확대 • 국제표준화와 중의약 자원보호관리체계 정립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완대체의학의 수요 증가 및 관련 시장 확대 • 오바마케어를 통한 보험 적용 확대 • 안전성 · 유효성 근거확보와 천연물 연구 집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erbal medicine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 강화 추세 •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EU차원의 공통규제 추진 • 안전성, 임상근거확보, 통합모델 개발 등 연구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일원화 시스템으로 전통의학을 통합적으로 관리 • 모든 의과대학 교육과정에 전통의학 교육 포함 • 연구개발과 고품질 한약제제로 세계시장 점유



3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의 중점추진 방향

- 의료체계 내 한의약의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을 강화하고 한의진료 표준화를 통해 치료의학으로서 한의약 위상 회복 필요
 - ➔ 한의임상진료 표준화 우선 추진
- 한의약 접근성을 높이고 치료효과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서비스 기반 확대 필요
 - ➔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공공의료 확대
- 정부의 지속적 지원을 통해 한의의료 서비스 관련 한약 산업 육성 필요
 - ➔ 한약제제 산업 중심으로 육성
- 한의약 해외진출 방안을 모색하여 전통의학으로서 국제 인지도 제고와 전통의약 국제 기준 선점 대응 필요
 - ➔ 한의약 세계화 및 국제 경쟁력 강화



II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의 비전과 추진과제

1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의 비전 및 목표

■ 비전 : 한의약을 통한 국민건강 향상 및 국가경쟁력 제고

- 목표 1 :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보급을 통한 근거 강화 및 신뢰도 제고
- 목표 2 : 보장성 강화 및 공공의료 확대를 통한 한의약 접근성 제고
- 목표 3 : 기술혁신과 융합을 통한 한의약 산업 육성
- 목표 4 : 선진 인프라 구축 및 국제 경쟁력 강화

한의약을 통한 국민건강 향상 및 국가경쟁력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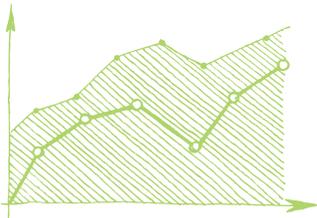
[그림 10]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의 비전 및 목표

2 목표별 추진과제

■ 총 4개의 목표에 따라 9개의 추진과제 및 18개의 세부과제로 구성

[표 13] 목표별 추진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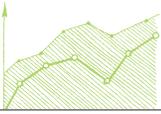
성과목표	추진과제	세부과제
I.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보급을 통한 근거강화 및 신뢰도 제고	1.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1-1.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1-2.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위한 임상연구지원
	2.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보급·확산	2-1.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확산
		2-2.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지원체계 구축
II. 보장성 강화 및 공공의료 확대를 통한 한의약 접근성 제고	3. 한의약 보장성 강화	3-1. 한의약 보험급여 제도 개선
	4. 한의약 공공보건의료 강화	3-2. 양·한방 협진 활성화
III. 기술혁신과 융합을 통한 한의약 산업 육성	5. 한약(재) 품질관리 및 유통체계 강화	4-1. 한의약 공공보건의료 강화
		5-1. 한약자원 생산·보관·관리 체계 구축
	6. 기술혁신을 통한 한의약 상품 지원	5-2. 한약(재) 제조·유통관리체계 선진화
		6-1. 한약제제 개발 및 특허 지원
	7. 한의약 R&D 지원	6-2. 한약제제 활성화 기반 마련
		7-1. 한의약 R&D 지원 강화
IV. 선진 인프라 구축 및 국제경쟁력 강화	8. 한의약 발전 인프라 마련	7-2. 한의약 기반 제품 개발 및 지원
		8-1. 한의인력 전문성 강화
		8-2. 한의약 지식정보화 및 국가지원화
	9. 한의약 국제경쟁력 강화	8-3. 한약진흥재단 정책지원 강화
		9-1. 한의인력 국제교류 및 한의약 세계화 활성화 지원
9-2. 한의 국제표준화 기반구축		



제3장

분야별 세부계획

- I.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보급을 통한 근거강화 및 신뢰도 제고
- II. 보장성 강화 및 공공의료 확대를 통한 한의약 접근성 제고
- III. 기술혁신과 융합을 통한 한의약 산업 육성
- IV. 선진인프라 구축 및 국제경쟁력 강화



I

한의학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보급을 통한 근거강화 및 신뢰도 제고

1 한의학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1.1 한의학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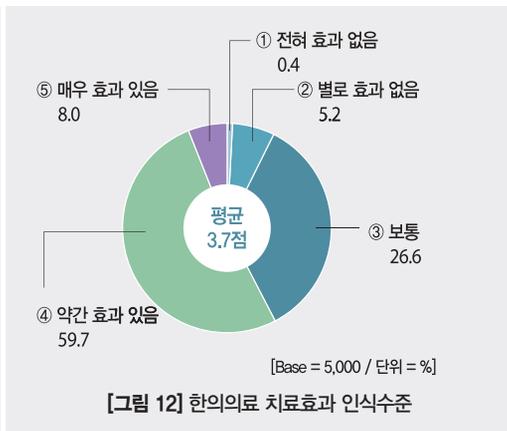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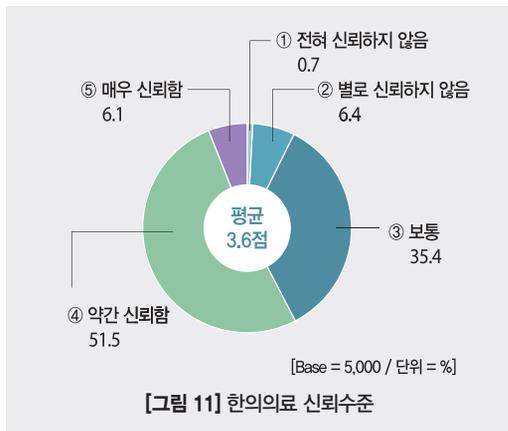
현황

■ 한의학의 특성상 질환에 대한 치료법이 한의 의료기관, 한의사에 따라 상대적으로 다양

- 한의학 임상기술의 편차는 한의 진료의 일관성·효과성·안전성 등에 대한 의구심으로 연결, 한의학 신뢰 및 발전 저하 요인으로 작용

- 한의진료 불만족 요인의 34.8%는 한의사마다 다른 치료방법(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1)

- 한의의료에 대한 신뢰도 및 치료효과의 긍정적 인식수준이 50% 수준



※ 자료 :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4)

-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위한 투자 부족, 개발된 지침은 수용성이 낮아 활용 미흡
- 한의약의 발전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동일 상병에 대한 치료법 편차가 상대적으로 크고, 이용 빈도가 높은 질환을 중심으로 표준화 필요
- 이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 단계에서부터 한의계 내·외 의견수렴을 위한 거버넌스 구성 필요
- 서양의학*은 국제적으로 개발·검증된 임상진료지침의 번역만으로도 활용이 가능, 한의약**은 한의약 고유 특성을 고려한 독자적인 임상진료지침 개발이 필요하나 지침 개발이 적음

* 의과는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 또는 대한의학회 중심으로 127개의 임상진료지침 개발 완료('15. 7월 기준⁴⁾)

** 한의임상진료지침은 현재 총 15건(보건복지부 4건, 한의학(연) 5건, 학회 6건)이 개발되었으며, 8건은 개발단계('15. 9월 기준)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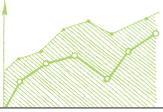
◆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용어 정의를 위한 CP와 CPG의 비교

- 표준진료지침(CP, Critical Pathway)과 임상진료지침(CPG, Clinical Practice Guideline)은 개념이 다름
 - 표준진료지침은 '임상진료지침을 기초로 하여 개별 병원에서 적정 진료를 행할 수 있도록 질환, 수술별 진료의 순서와 치료의 시점, 진료행위 등을 미리 정해 둔 표준화된 진료 과정'임⁵⁾
 - 임상진료지침은 환자를 최적으로 진료하기 위한 권고를 기술한 것(statements⁶⁾)으로, 관련 근거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이 되는 옵션의 이득과 위해를 평가하여 개발됨
 - ※ 표준진료지침 적용 시 비용절감 효과 우수, 지침 개발·보급에 정부의 적극적 투자 필요 (감사원, 2014)

4) <http://www.guideline.or.kr>

5) Coffey RJ, Richards JS, Rimmert CS, LeRoy SS, Shoville RR, & Baldwin PJ. An Introduction to Critical Paths. Quality Management in Health Care, Aspen Publishers, Inc., 1992.

6) Institute of Medicine (IOM),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We Can Trust, 2011.



주요내용

1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대상질환 선정 ('15~'16)

① 국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질환을 중심으로 대상질환 선정(20~30개)

- 사전 연구용역('15. 8. ~ '16. 2월, 주관연구기관: 대한한의학회)을 통해 후보 질환도출 범한의계 거버넌스(근거중심 한의약 추진위원회)에서 선정

2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16~'21)

① 지침 개발을 위한 지침개발단(총괄) 및 분과별 실무작업반 운영

- 분과별 학회장을 중심으로 지침개발단을 구성하고 질환별로 실무작업반 구성·운영

② 체계적 문헌고찰 등 주요 연구방법론을 적용한 근거기반 문헌연구

- 문헌의 질 평가, 근거수준, 권고등급 등 질환별 개발방법 설정

3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인증 및 미포함 진료행위 검증

① 지침의 인증 및 지침 관련 진료행위 검증

- 개발연구가 완료된 지침의 검토·평가 후 범한의계 거버넌스에서 인증
- 지침과 다른 진료행위 등록·검증절차 및 인정기준 마련, 인정 결정된 진료행위의 진료 지침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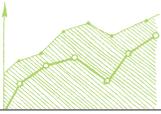
1.2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위한 임상연구지원

현황

■ 의과는 국제적으로 많은 지침이 개발되고 평가도 이루어져 번역만으로도 국내활용이 가능, 한의는 임상시험 등 검증절차 병행 필요

- 한의의료 비용 이유의 21.9%는 한의의료 효과성에 대한 의구심
- 부족한 임상연구를 바탕으로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시 안전성 및 효과성에 대한 근거가 미흡, 건강보험 급여 포함에 장애로 작용
-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고려할 때 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 필요





참 고

◆ 한의약 근거창출 임상연구 지원 현황

[표 14] 한의약 근거창출 임상연구 지원 현황

(단위: 백만 원)

	과제 명	연구기간	총지원액
1	추나요법 근거창출 임상연구-유효성, 안전성, 경제성 평가	2015. 6. 1.~ 2018. 5. 31.	650
2	건강인 및 골관절염 환자에서 다빈용 골관절염 치료제의 한약-양약 약물 상호작용연구	2015. 6. 1.~ 2018. 5. 31.	500
3	한약(온경탕과 배란착상방)투여 및 침구치료의 난임치료 효과규명을 위한 임상연구	2015. 6. 1.~ 2018. 5. 31.	650
4	한의학 진단 및 맞춤 한약 치료의 근거기반을 위한 다기관 임상연구	2012. 6. 25.~ 2019. 6. 24.	5,800
5	비만과 대사증후군, 수족냉증, 아토피피부염에 대한 한의진단 및 한약치료의 임상 근거창출 연구	2013. 5. 15.~ 2020. 5. 14.	5,800

■ 다만, 한의약 분야는 서양의학적 연구방법론을 그대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한의약 특성을 고려한 연구방법론 개발 필요

- 전통적 한의 진단은 한의사의 감각에 의존하여 표준화가 어려우므로, 한의 진단 기술의 생체 지표 발굴을 통한 객관적인 진단 기준 필요

주요내용

1 근거 창출을 위한 임상연구 병행 ('16~'21)

① 근거(문헌)기반 연구 및 근거 창출을 위한 임상연구 수행

- 20개 질환 단계별 연구지원(1단계(2년): 문헌연구, 2단계(3년): 임상연구)
- 10개 질환은 '16년, 10개 질환은 '17년 연구 개시

② 기개발 임상진료지침은 검토·인증 후 근거 창출 위한 임상연구 수행

- 문헌연구를 근거로 기개발된 진료지침의 검토·인증절차를 거친 후 주요 임상질문에 대한 임상연구(3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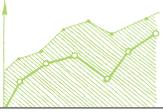
③ 건강보험 급여 인정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성 평가(비용효과분석 등) 등을 고려한 임상연구 설계

- 수가개발을 위한 수가 자료수집, 모형개발, 시범적용 병행

[표 15] 연차별 투자 및 추진계획

(단위: 억 원)

구분		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계(총 30건)		259	35	45	55	48	48	28
근거기반 +근거창출 I (10건)	문헌	80	10 (신규10건)	10 (계속)	-	-	-	-
	임상		-	-	20 (계속)	20 (계속)	-	
근거기반 +근거창출 II(10건)	문헌	80	-	10 (신규10건)	10 (계속)	-	-	-
	임상		-	-	-	20 (계속)	20 (계속)	20 (계속)
근거창출(10건)	임상	60	20 (기존10건)	20 (계속)	20 (계속)	-	-	-
사업운영비		39	5	5	5	8	8	8



2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위한 기반 마련

① 한의진단기술 표준화를 위한 지표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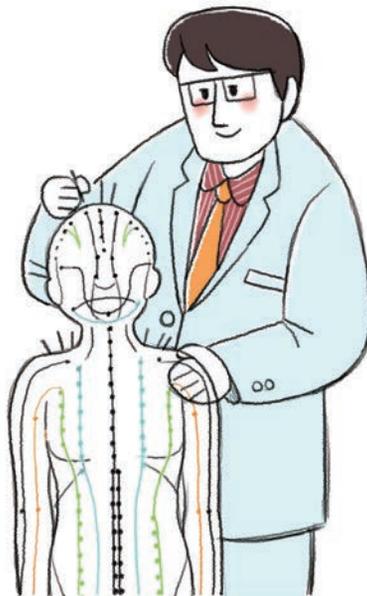
- 생체정보를 통한 진단지표 개발 및 한의진단기술 구분을 위한 표준안 마련 지원

② 한의진단기술 임상근거 확보

- 임상연구 및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 지원을 통해 한의진단기술 임상근거 마련

③ 한의임상연구방법론 탐색·개발 및 확산 등 기반 구축

- 한의학, 중의학, 보완통합의학 등 기존 한의약 관련 임상연구를 대상으로 연구방법론 체계적 검토 및 문제점 분석
- 임상연구 방법론 전문가 그룹 네트워크 구축(한국보건 의료연구원과 정기적 회의 개최 등)
- 한의약 임상연구 특성을 반영한 연구방법론 개발
- 과학적·한의학적 적절성 검토 및 개발된 한의임상연구방법론 확산



2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보급·확산

2.1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확산

현황

- 기관별·사업별 산발적 개발, 한의계 내 공감대 형성이 어려워 지침의 보급·활용 미흡
- '15. 9월까지 총 15건의 한의임상진료지침이 개발되었으나, 임상현장에서의 인지도 및 활용률 저조
- 한의임상진료지침 확산을 위해 보험수가 반영 및 보수교육 포함 등 고려 필요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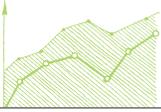
◆ 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 현황

[표 16] 개발된 한의임상진료지침

	지침 명	개발기관	개발년도
1	난임 한방임상진료지침	대한한방난임학회	2010
2	비만환자에서의 방풍통성산 투약지침	한방비만학회	2012
3	비만환자에서의 방기항기탕 투약지침	한방비만학회	2012
4	화병 임상진료지침개발	보건복지부	2013
5	경향통의 침치료 진료지침	보건복지부	2013
6	요통의 침치료 진료지침	보건복지부	2013
7	슬통의 침치료 진료지침	보건복지부	2013
8	요추 추간판 탈출증 한의임상진료지침	한국한의학연구원	2013
9	아토피피부염 한의임상진료지침	한국한의학연구원	2014
10	족관절염좌 임상진료지침	한국한의학연구원	2015
11	견비통 한의임상진료지침	한국한의학연구원	2015
12	특발성 안면신경마비 한의임상진료지침(개정)	한국한의학연구원	2015
13	한의 암치료의 임상 가이드라인	대한암한의학회	2015
14	사상체질병증 임상진료지침 개발	경희대학교	2015
15	교통사고 상해 증후군 한의진료가이드	척추신경추추나의학회	2015

◆ 중국의 중의임상진료지침 활용 현황

※ 중국은 중의우세병종 연구결과의 대부분을 임상매뉴얼 제작과 중의전문과 개설에 활용하여 검증된 임상 매뉴얼 확산 유도 및 지원(중의과학원에서 선정한 우세병종 103개 중 52개(51%)의 전문과 개설 추진)



주요내용

1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교육 및 홍보 ('18~'21)

- ①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근간으로 한 한의과대학 공통교육과정 개발 및 운용
 - 한의대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 근거한 표준화·과학화 교육 기반 구축
 - 한의대 교육 평가 인증(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등과 연계
 - 한의사 면허(실기)시험 연계
- ② 한의사 졸업 후 교육과정 및 공공보건사업 반영
 -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 기초한 (사)대한한 의사협회 보수교육 연계
 - 보건소 한의약건강증진 프로그램에 반영
- ③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홍보 및 제공
 - 인증된 지침은 정보센터 사이트에 게재, 정보 제공

2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 ('18~'21)

- ①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통해 임상연구까지 진행된 표준화된 진료행위에 대해(경제성 평가, 시범사업 후) 건강보험 급여 확대 추진
 - 건강보험 등재 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상 진료행위를 크게 벗어나는 진료방법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

2.2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지원체계 구축

현황

-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추진 총괄기관 및 한의임상 시험센터, 한의임상진료지침 정보센터 등의 인프라 부재**
-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개발·관리 및 개발된 지침의 보급·확산을 위한 상설 지원체계 필요
- 체계적인 임상연구 수행과 효율적인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근거마련을 위한 지역한의임상센터 활용방안 마련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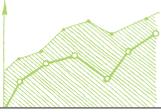
참고

◆ **의과 임상진료지침 지원체계**

- 대한의학회 중심으로 근거기반임상진료지침의 전주기적 지원을 위해 임상진료지침정보센터와 임상시험산업본부 운영
 - ※ 보건복지부에서 정보센터에 매년 운영비 3억 지원 받음
 - 임상진료지침정보센터 : 근거기반 임상진료지침 개발, 평가 및 인증, 보급 지원을 통해 개발된 임상진료지침의 확산 도모
 - ※ 국내 160개 회원학회 및 의료인 대상 임상진료지침 개발방법론, 평가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웹기반 임상진료지침 보급 활동 등을 통해 임상진료지침에 대한 접근과 활용 촉진
 - 임상시험산업본부 : 임상시험 수행을 위한 인력양성 및 임상시험센터 운영, 임상시험수탁기관 인증 등 담당
 - ※ 국가임상시험사업단은 사업 종료(07.11~14.3) 후 (재)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로 전환하여 임상인력 교육, 임상진료지침 기술지원, 지역임상시험센터 등 업무 지속 수행, 지역임상시험센터 15개 대학병원을 선정·지원 중 (1개소당 5년간 200억 수준 지원 중)

◆ **중국 중의임상진료지침 지원체계**

- 중국 중의과학원은 산하에 연구기관 외 임상연구소와 의학실험센터, 병원이 있어 기초·임상연구결과를 진료 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전 주기적 지원 체계 구축
 - ※ (산하병원) 서원병원(제1임상의약연구소, 노년의학연구소, 임상병리연구소), 광안문병원(제2임상의약연구소, 중앙연구소), 왕칭병원(골상과연구소), 안과병원(안과연구소), 침구병원 등



주요내용

1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개발사업단(가칭) 설립

- ① **지침개발 및 인증 등 사업추진을 총괄할 (가칭)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개발사업단 설립**
 - 주관연구기관을 선정하여 향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완료 후 지침 관리·고도화 단계 예정
- ② **지침개발단 구성·운영**
 - 지침개발을 위한 별도의 지침개발단을 설치하며 분과별 실무작업반을 운영
- ③ **운영위원회 및 검토·평가위원회 구성**
 - 사업단 내 운영위원회는 사업추진 계획 및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담당
 - 개발 완료된 지침의 인증 및 지침과 다른 진료행위의 검증절차 총괄 등은 별도의 자문(심의) 위원회에서 진행



[그림 14]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개발사업단 추진체계(안)

2 임상진료지침 정보센터 설치

1 임상진료지침 정보센터 설치·운영

- 임상진료지침 개발방법 기술지원, 지침 사용법 교육, 보급 및 홍보, 정보제공 사이트 운영 등의 역할 담당

3 지역한의임상센터 활성화 지원 및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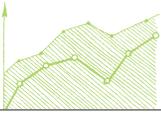
1 임상연구를 수행하는 지역한의임상센터 적극 활용

- 경희대, 원광대, 대전대 등 3개 대학 지원 중, 향후 2~3개 확대 추진 (수도권, 전라권, 충청권, 경북권, 경남권)

2 임상연구지원센터 설치·운영

- 교육, 인력 등 임상연구 수행 지원





II

보장성 강화 및 공공의료 확대를 통한 한의약 접근성 제고

3 한의약 보장성 강화

3.1 한의약 보험급여 제도 개선

현황

■ 전체 의료인(醫·齒·韓 총 15.8 만명) 중 한의사는 14%(2.1만명)이나 국민건강보험 한의 진료비 비중은 4.17%(54.5조 중 2.3조)(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4)

※ 한의 건강보험 진료비 비중 : 3.85%('10년) → 4.02%('12년) → 4.16%('13년) → 4.17%('14년)

- 비급여본인부담률도 의원은 18.4%이나, 한의원은 30.7%로 높은 수준('13년 기준)
- 전체적인 보장률은 일반병원의 60%, 의원급의 80% 수준에 불과
 - ※ 건강보험 보장률 : 한방병원 30.8% vs. 일반병원 49.8% / 한의원 52.7% vs. 의원 61.3%(국민건강보험공단, 2015)
- 수요자의 한의약 접근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높은 진료비 부담을 1순위로 지적
 - ※ 한의의료 개선사항 : 1위 고가의 진료비(40.9%), 2위 한약안전성확보(27.6%)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4)
- 한약은 연조엑스제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제형으로 개발·유통되고 있는데 반해 한의 건강보험은 산제 중심으로 급여*, 한약 관련 산업 발전 기여도 낮음
 - * 68종 단미엑스산제, 56개 처방 급여, 이중 7종의 처방에 대해 연조엑스제 보험 급여
- 한의 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거친 실질적 연구 부족으로 건강보험 급여시 장애

■ 국민건강보험 이외에도 공공보험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민간보험으로서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등을 통해 급여·비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한 보장이 이뤄지고 있음

● 자동차보험은 가입이 강제된 보험으로 공공적 특성이 있으며, 건강보험에 비해 보장 범위가 넓고 상대적 비중도 더 높은 수준

- 자동차 보험은 '13년부터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보험 청구 심사평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여 전문관리체제로 전환
- 그러나 한의약 비중이 최근 증가한 상황에서 보험업계는 과잉·부당 청구 우려를, 한의원은 일부 수가가 여전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

* 16.7%(918억 원, '13. 7-12월) → 18.9%(2,698억 원, '14년 전체)

주요내용

1 한의약 건강보험 확대 및 수가개발

① 다양한 수가개발 및 급여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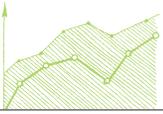
- 한의원에서 비급여 다빈도 처치 한의물리요법* 중 일부를 시범사업 등을 거쳐 급여화 추진 ('14~'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 기반영)

* 운동요법, 한의물리치료, 추나

- 난임, 양·한방 협진 등 적정 급여 대상을 발굴하여 시범사업, 포괄수가, 선별급여, 위험분담제 등 다양한 급여화 방식 검토 및 수가 개발 추진

② 보험급여 한약제제 합리적 개선

- 한약제제 급여기준의 합리적 개선을 통한 적정 진료 보장
- 다빈도 처방 중심으로 56개 처방을 검토하여 정비



③ 한의약 보장성 확대 추진체계 구축

- 한의약정책과, 보험급여과, 의료자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 한의약 보장성 확대 추진체계를 구축, '14~'18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 및 수가개발 연구를 통한 한의약 보장성 확대 방안 모색

④ 비급여 의료비 관리체계 구축

2 자동차 보험급여 제도 개선

① 자동차보험 급여항목 개선

- 추나, 약침 등에 대한 기준 개선
- 급여 수준 적정성을 평가하여 재료비 등 수가 현실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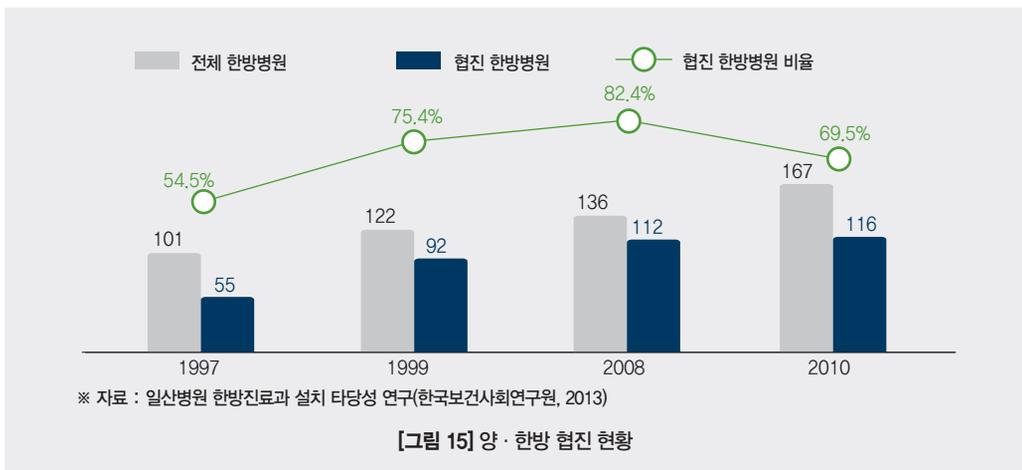
3.2 양·한방 협진 활성화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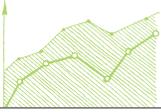
■ 복수면허자의 의료기관 동시 개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교차 고용 허용으로 제도상 협진⁷⁾ 가능

- 협진 진찰료는 월 1회, 입원한 경우만 별도 청구가 가능, 동일 상병에 대하여 의과와 한의과에서 동시에 진단·처치·검사를 실시할 경우 선행 진단·처치·검사만 청구 가능(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 협진 한방병원은 116개소('10년)로 전체 한방병원 중 협진을 실시하는 병원의 비율은 '9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08년 이후 감소하여 '10년에는 69.5%('10년)



7) 의료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표 17] 양·한방 협진 다빈도 상병

외래환자	입원환자
상세불명의 요통, 요추부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추간판 장애로 인한 좌골신경통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사지마비 NOS
어깨 관절주위염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양쪽 일차성무릎관절증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안면마비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척추병증, 상세불명의 부위
추간판 장애로 인한 좌골신경통	양쪽 일차성무릎관절증
한쪽 일차성무릎관절증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테니스팔꿈치	안면마비

※ 자료 : 양·한방 융합기술 및 치료 서비스 개발 육성을 위한 제도 환경 구축 방안 연구(보건복지부, 2015)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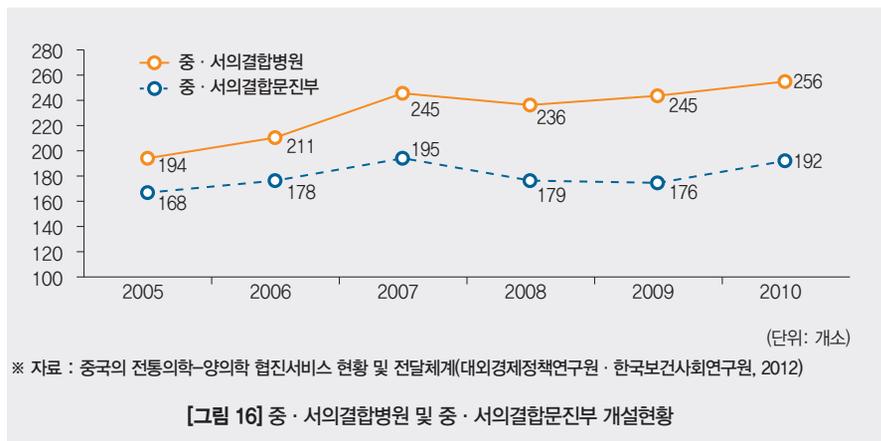


◆ 주요 국가의 보완대체의학 협력 및 확대 현황

- 중국 : 1976년 중·서의결합 10개년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중의학 및 중·서의결합 성과와 임상 경험 확산, 교육과정 정비를 통해 중·서의결합을 지속적으로 추진

– 중·서의결합기관 및 병상 수는 전체기관 병상 수의 약 1%를 차지, 의료보험 확대로 지속적 증가 추세

※ 중·서의결합병원은 총256개(기관 448개), 설치병상은 31,015개로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 병상 수의 1%를 차지. 이용환자는 '05년 대비 '11년 약 2배 이상 증가하여 연간 28,948천 명



[그림 16] 중·서의결합병원 및 중·서의결합문진부 개설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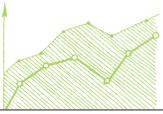
- 미국 : 침술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으며 국립보완대체의학연구소를 국립보완통합의학연구소로 변경하여 국립암센터 등과 함께 보완대체의학 임상연구 진행

- 유럽 : 전수조사를 통해 보완대체의학 현황을 파악, 안전하고 저렴한 비용의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CAM 2020*수립

* 유럽보완대체의학회(Network of European CAM, EUROCAM)의 보완대체의학 로드맵인 CAM 2020은 보건정책(안전성, 맞춤형약, 비용효율적 공급, 예방), 규정, 관련제품의 유용성, R&D 투자계획 등 포괄

- 일본 : 전통의학인 캠펜(Kampo)가 현대의학에 편입되면서 단일화된 의료체계를 운영, 의사가 한약과 양약을 함께 처방 가능

– 일본 의사면허 소지자는 일본 동양의학회가 정한 연수시설에서 3년 이상 한방의학 임상수련을 쌓은 자에게 한방전문의 자격 부여



주요내용

1 양·한방 협진 활성화 및 협진체계(수가) 마련

- ① 협진 활성화 : 의료기관 유형별(기관 간, 기관 내) 협진 모델 분석 및 표준 모델 도출
 - 다빈도 질환, 중증질환 등에 대한 협진모델 개발·보급
- ② 협진수가 개선 : 협진에 대한 비교효과연구와 비용-효과 분석 등의 경제성 평가 연구를 통해 협진 수가 신설 등 개선안 마련
 - 협진 의료 수가 개선 등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임상 근거 수립
 - 협진 수가 신설을 위한 원가 분석 및 협진 의료비 지출구조 파악
 - 양·한방 협진 수가 대상질환 선정(16년) 및 시범사업 실시(17~20년)
 - * 협진 수가 등을 적용하여 협진 활성화 유도
 - * 현행 수가 : 입원 시 양·한방 협의진찰료 산정가능 (2~5회/1월), 외래에서 양·한방 동일목적 진료 반복 시 반복진료비용 전액본인부담



4 한의약 공공보건의료 강화

4.1 한의약 공공보건의료 강화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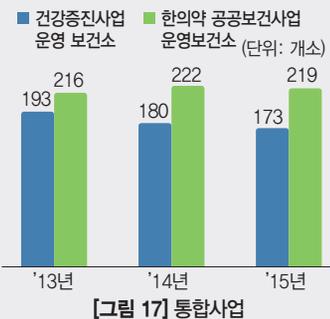
■ 공공영역에서 한의의료 관련 인프라 부족, 역할 수행도 미흡

- 한의진료가 가능한 국공립 의료기관 부족
 - 현재 부산대학교 한방병원(200병상), 국립중앙의료원 한방진료부(3개과, 31병상), 국립재활원(2개과), 일부 국공립 보건의료원, 보건(지)소에서 한의진료 실시
-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수행기관이 부족하고 사업에 대한 낮은 인지도(11.8%)⁸⁾로 지역 내 활용이 미흡, 점차 축소되는 추세
 -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수행 보건소는 총 174개소(68%)(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의약건강증진 TF팀, 2015)

[표 18]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수행현황

(단위: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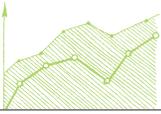
	한의약공공보건사업 수행 (Hub보건소+진료소 운영)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허브보건소 수	23	30	35	45	55	65	70	85
한의약공공보건사업 운영보건소 수*	177	177	191	161	206	201	204	206



* 전체운영보건소 수는 HUB 보건소(한의약건강증진사업) 또는 진료소를 운영하는 보건소의 총합이므로, 1개 보건소가 중복 집계된 경우도 있음

※ 자료: '05~'12년 한의약건강증진사업 발전방향 간담회 자료(한국건강증진재단,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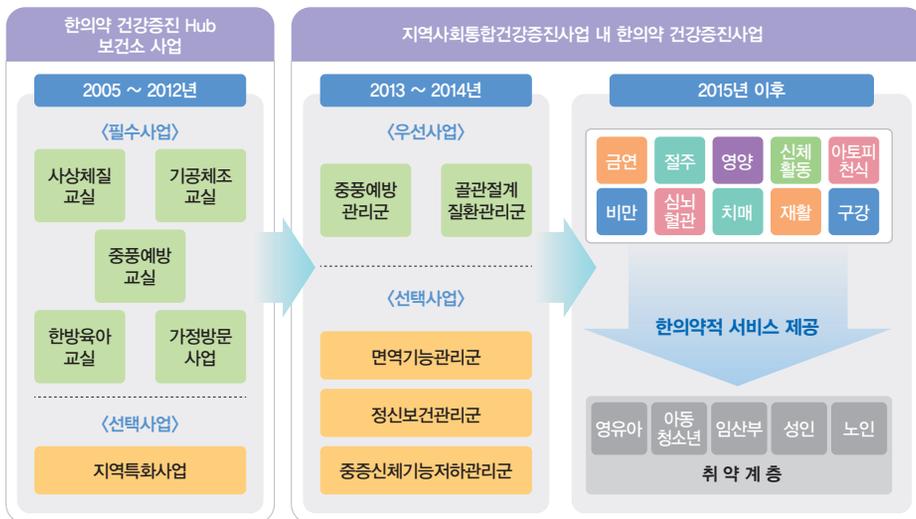
8) '15년 기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내부자료.



참 고

◆ 한의약건강증진사업

- '13년부터 고령화, 건강 수명 연장 등 지역사회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형 보건의로서비스 제공
 -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 한의약건강증진프로그램은 174개 보건소에서 생애주기별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748개 세부 프로그램 수행 중



※자료: 2015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 한의약 건강증진(보건복지부, 2015)

[그림 18]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추진경과

■ 국가 공공보건의료 사업(HP2030) 흐름 변화에 맞추어 한의약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스템 변화 및 인프라 확충 필요

*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 운영, 보건소 기능에서 진료비중 축소 및 예방 관리 확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내 한의약분야 수립 논의 시작 등 변화된 상황에 맞는 한의약 공공보건의료 지원시스템 구축 및 전문가 역량 강화 필요

- 공공의료기관의 차별화된 한의약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연구기능 역할 강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 필요성 대두

참고

◆ **중의약과 공공보건의료서비스**

- 중국은 중의서비스를 예방·보건·의료·재활분야로 구분하고 현(縣)급에서부터 기존병원, 보건소까지 중의약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의 중의약법제정 추진
 - 중국 내 보건의료체계에서 중의서비스의 범위와 역할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공급 확대로 연결시켜 공공보건체계에서의 중의약 역할 제고 도모

주요내용

1 한의약 공공의료서비스 역할 강화 지원

① 국공립병원 내 한의약 보건의료 기능 강화

- 국공립병원 한의약 공공의료서비스 확대(부속병원 등)
- 국공립의료기관 협의체 구성 및 지원강화
- 광역단위 지원사업 개발 및 지역보건소 연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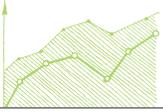
② 한의약 공공보건의료 지원 근거 마련

-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에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이 독립된 중점과제로 인정 받도록 하여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근거 및 동력 마련

2 지역사회 한의약건강증진사업 활성화 지원

①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지원체계 마련

-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과 연계된 한의약건강증진 중장기 육성방안 마련
- 한의약건강증진사업 개념 정의
-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성과 관리체계 마련 및 성과지표 개발



② 한의약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 한의약 건강증진 기법 발굴 및 연구를 통한 객관적 효과 검증
- 보건복지부 인증 한의약건강증진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확산

③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우수 보건소 인증 및 기술지원

- 한의약건강증진 사업 수행 우수 보건소 인증제도 도입 및 홍보, 기술지원 강화

④ 보건소 한의약건강증진분야 사업담당 인력 확충 및 역량강화

- 한의사의 보건소 배치기준(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준수 독려 및 모니터링 등을 통해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전담인력 확충
- 공중보건한의사 표준 업무 지침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담당자 역량 강화



III

기술혁신과 융합을 통한 한의학 산업 육성

5 한약(재) 품질관리 및 유통체계 강화

5.1 한약자원 생산·보관·관리 체계 구축

현황

- 나고야의정서 등 국제협약, 자원 고갈 등으로부터 자원을 보호·관리하기 위해 각국이 노력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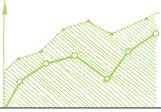
참고

◆ 나고야의정서 발효와 생물 유전자원

- 나고야의정서 발효로 인해 생물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국가는 그 자원을 보유한 국가에게 사전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상호 합의된 계약조건*에 따라 공유

* 상호 합의조건에는 이익공유의 내용과 방법, 생물유전자원 뿐 아니라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까지 대상으로 포함

- 중국은 중약자원 보호 및 자원 다양성 확보를 위해 자원보호 관리체계 및 전통의학지식 보호 체계 수립 추진
 - 야생 중약재 보호를 위한 38개의 약용식물원 운영
 - '11년 이후 전국 중약자원일제조사를 다섯 차례 실시하여 자원의 종류, 분포, 매장량, 자원 변화추세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중약재 유전자원장고 건설 추진



- 전통지식 보호법률은 따로 없으나, 중약이 포함된 약품을 지재권 보호범위에 포함(1992년), 중국 상표제도에 지리적 표시를 도입하여 중약지명 상표 선정

※ '12년 기준 중약재 108종, 상품 281종 등록

- 국내에서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12년)하고, 「한국 토종자원의 한약재 기반구축사업」을 통해 토종한약재 유전자원 196종 품목 확보

■ 원료 생산단계부터 안전 및 품질확보가 중요해지면서 중국, 일본은 계약재배 활성화를 통한 품질 표준 관리 추진

- 일본 : 한약재 원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자국 생산을 늘리기 위해 중국 등 국외 재배지에 자체 개발한 경작시스템과 유지관리시스템 적용

* 쓰무라제약의 원료 한약 중 80%는 중국에서 수입, 15%는 자국생산, 5%는 기타지역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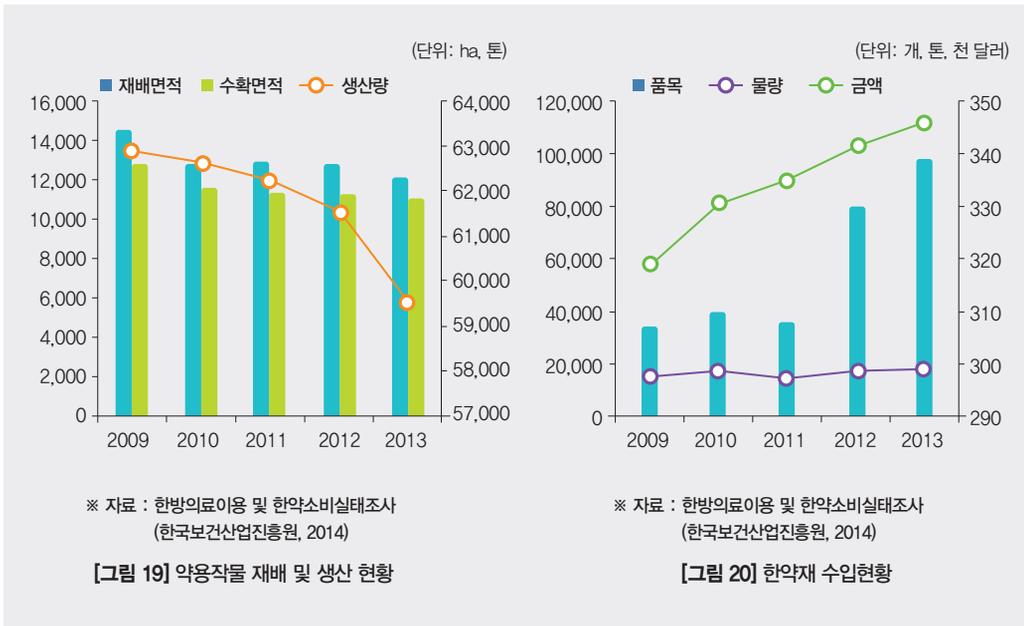
- 중국 : 우수중약재 품종 선택 육성, 중약재 규범화 생산재배시스템 구축, 중약재 품질표준 연구 등을 통해 중약재 표준화 기반기술 및 관리체계 성숙단계 진입

- '02년 「중약재 생산품질관리 규범」을 통해 약재의 생산품질 확보를 위한 전 단계를 규범화하고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감독하에 98개의 GAP 생산기지 설립 및 운영 중('13. 1월 기준)

■ 한국의 경우 약용작물 재배·수확면적 및 전체 생산량은 '09년도 이후 계속 감소, 한약재 총 수입량 및 수입금액은 높은 수준으로 증가

- 국내 약용작물 재배면적은 연평균 4.62%, 수확면적은 3.77%씩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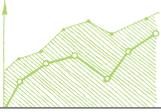
- '09~'13년 한약재 총 수입물량은 연평균 5.4%씩 증가, 수입액은 17.4%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증가



● 우수한약재 재배를 위한 집단화·단지화 조성 미비로 한약재의 품질규격 편차 존재, 규격화 미흡

- 한약재 중 GAP⁹⁾ 표준재배지침이 있는 품목은 50개 품목이며, 그 외 한약재 재배작물은 동일 식물 재배법 준용
- 한약재의 재배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어 표준화된 품질 규격 확보 불가
- GAP 표준재배지침의 미준용으로 지역별·재배방법별 품질 차이 발생

9) Good Agricultural Practice(GAP), 농산물우수관리제도: 농산물 생산단계에서 판매단계까지의 농산식품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한약재로 이용되는 약용작물의 일부에 적용되고 있음.



주요내용

1 한약자원 기술개발

① 한약자원 감별기술 개발

- HPLC를 이용한 감별(fingerprinting), 유전학 기술 등을 활용한 감별기술 개발
- 우수한 국내 한약자원에 대한 생산단계 표식(tagging)기술 개발
- 한약자원 모노그래프 개발 및 확대

② 한약재 자원 수집 및 보존

- 한약재 원식물의 동속 및 근연식물 종 탐색 및 수집
- 확보된 약용식물 및 유전자원을 분류, 표본제작, 데이터베이스 등록
- 식물 분류학자를 통한 수집자원의 동정 및 확증

③ 지역 적응성 분석 및 한약재 자원 표준재배기술 개발

- 수집자원의 지역적응성 분석을 통한 지역별 재배작물 선정
- 신규자원의 표준재배법 개발을 통한 한약재 재배농가 표준재배기술 교육 추진
- 신규자원 중 지역적응성 및 한약재로 유망한 자원의 지역별 종자 확대보급 추진

2 토종 한약자원 국가관리 체계 구축

① 토종 한약자원의 재배 표준화

- 토종 한약자원의 GAP 수준의 재배기술 개발과 원료 표준화
- 발굴 자원의 재배 확대를 위한 종자 증식기술 개발
- 유망 약용자원의 유전자원 보존 및 종자 보급
- 대상품목 선정(50종 이상) 및 재배정보 확보('16년), 재배 표준화 추진('16~'20년)

② 토종 한약자원의 현대 과학화, 규격 표준화

- 토종 한약자원의 유전자원 확보 및 한약재 사용을 위한 규격 설정
- 대상품목 선정(50종 이상) 및 규격 표준화 추진('16~'20년)

③ 생물전환 대사체 및 분리 정제된 천연물질을 은행으로 구축, 한의약소재 통합정보 검색 시스템을 통한 연구 활성화

- 한의약소재로부터 단일 천연물질 및 생물전환 대사체 확보, 유·무상 분양을 통한 신기능성 제품 개발 지원
- 천연물질 및 대사체 추가 확보 8천개, 연구 소재 분양 4천 건 이상('16~'20년)

③ 한약(재) 독성연구 인프라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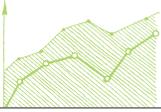
① 토종 한약자원 안전성 평가(독성평가) 시설 구축 및 장비 확충

- 비임상시험관리기준(Good Laboratory Practice, GLP)¹⁰급 시설 구축 및 컨벤셔널급 시설 보강
- 혈구분석기, 혈액생화학분석기 등 GLP 기준에 준하는 장비 구축
- 한약제제 수출을 위해 안전성에 관한 과학적 근거 마련
- 공정서 미등재 토종자원의 안전성 검증을 통해 공정서 등재 및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 산업화 소재 개발

② GLP 기관 인증

- 기관 운영 전문 인력 역량 강화
- 단회투여, 반복투여, 유전독성, 복귀돌연변이, 소아독성 5개 분야 인증

10) 비임상시험기준: 시험 실시기관에서 수행하는 비임상시험의 계획·실행·점검·기록·보고되는 체계적인 과정 및 이와 관련된 전반적 사항을 정하는 기준



③ 토종 한약자원 안전성 평가 자료 확보('17~'20년)

- 설치류와 비설치류에 대한 독성 정보 확보(단회투여, 13주 반복투여 독성평가 20품목 이상)
- 유전독성 및 복귀돌연변이 평가 20품목 이상

④ 우수 한약재 생산 촉진

① 우수품종 육성 및 보급

- 종자보급센터 구축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을 통해 고품질 다수성 품종 개발·보급 확대
- 우량종자 생산·보급 국가관리체계 구축

② 우수하고 안전한 한약자원 생산 확대

- GAP 인증 지원 및 인증면적 확대를 통한 약용작물 안전성 관리 강화
- 고품질 신품종 GAP 시범 재배*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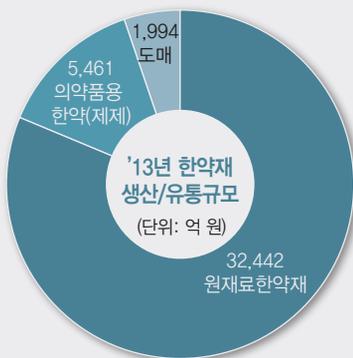
* 신품종 보급 및 GAP 재배기술 보급



5.2 한약(재) 제조 · 유통관리체계 선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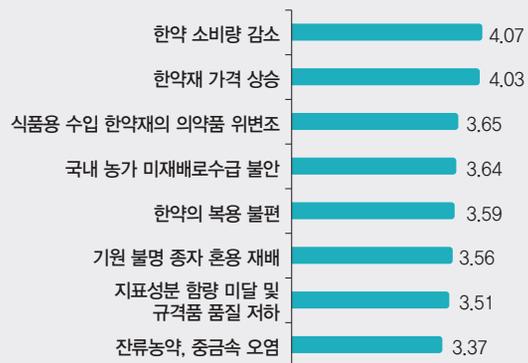
현황

- 국내 한약재 생산량 감소 및 수입의존도 증가에도 불구하고 각국 공정서에 기재된 규격이 달라 수출입 시 문제 발생
 - 기원종이 많아 한약재의 진위, 품질, 대응문제 등에 대한 이슈가 발생 규격화 곤란
- 한약재 품질검사 관리 강화로 안전과 신뢰가 확보된 한약재의 공급 및 유통 필요
 - 한약제조업체 및 도매상, 한의병 · 의원 대상 설문조사에서 식품용 수입 한약재의 위변조, 기원 불명 종자의 혼용재배 등 한약 품질 및 안전성 관련 문제를 주요 이슈로 제시



※ 자료 :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4)

[그림 21] 한약재 생산 · 유통 규모 추정



※ 자료 :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4) 5점 척도로 설문 · 측정

[그림 22] 한약 관련 이슈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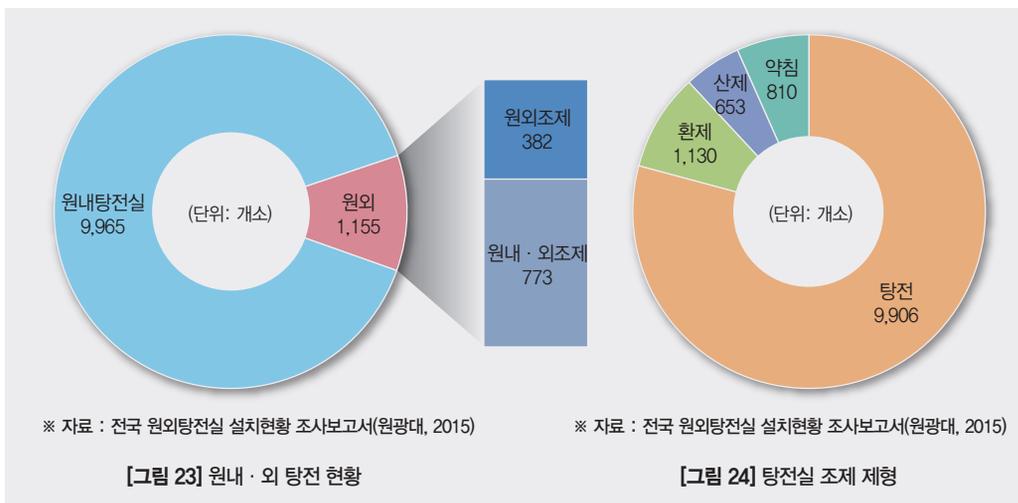


■ **국내 시중 한약재의 품질신뢰성을 높이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15년부터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 전면 도입**

- '15년 1월부터 한약재 GMP 전면 도입으로 한의의료기관에서는 한약재 GMP 인증을 받은 제조업소에서 생산한 규격품 한약재만 사용 가능
 - 한약재 GMP 적격업소의 대부분이 '14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등록(129곳, '15.7월 기준), GMP 적격업소 종사자들의 GMP 제도 이해도 향상 및 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 필요

■ **'08년 9월 의료기관의 원외탕전실 설치 및 탕전실 공동이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원외탕전실 설치 및 이용의 지속적 증가 추세**

- 원외조제를 하는 탕전실은 총 1,155곳으로 전체 한의원의(설문대상 11,928개소) 9.7%, 탕전실(11,120곳) 중 10.4%를 차지
- 원외조제만을 하는 탕전실은 382곳으로 전체 한의원의 3.2%(원광대, 2015)
 - 탕전실에서 조제하는 제형은 탕전이 79.3%를 차지, 약침을 조제하는 탕전실도 810곳에 달함



- GMP 기준을 준수하여 제조되는 의약품과 달리 원외탕전실은 위생적인 시설관리, 조제과정별 품질관리가 미흡하며, 의약품으로서의 안전성, 유효성, 품질일관성 등 확보를 위한 관리기준이 부재
 - 원외탕전실은 증가하고 있으나, 관리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관리 지침의 고도화 요구

주요내용

1 한약재 GMP 전면시행에 따른 관리 강화 및 제도 정착

① 한약재 GMP 전면시행에 따른 관리 강화 및 제도 정착 지원

- 한약재 GMP 업체 정기 감시 및 GMP 미승인 업체의 불법 제조·판매 행위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 교육 프로그램 운영·홍보

② 한약재 제조·유통 관리 강화

2 한약공정서 개정 및 품질규격의 국제화

① 한약공정서 단일화 및 한약(생약) 기준규격 시험법 개선

- 한약공정서 통합 및 기준규격 개선을 통해 한약(생약) 품질 규격 선진화 도모

3 원외탕전실 관리강화

① 원외탕전실 실태 파악 및 관련 지침 개정

- 원외탕전실에서 조제하고 있는 한약 종류 실태조사
 - 주로 탕약, 환·산제를 조제하는 일반탕전실과 약침약제를 조제하는 약침조제 탕전실로 구분
- 원외탕전실 지침 개정으로 약침 조제 탕전실 시설기준 강화

② 원외탕전실 조제한약의 제조 및 품질관리 방안 마련

- 다빈도 약침약제 위생·안전관리 등 품질향상을 위한 규격·표준화 추진
 - 규격·표준화를 위한 제조공정 가이드라인 설정



6 기술혁신을 통한 한의약 상품화 지원

6.1 한약제제 개발 및 특화 지원

현황

■ 세계적으로 천연물의약품 시장은 성장 추세이며, 한약제제 또한 그 일부로 중국 중심으로 시장 확대

- 중국, 일본, 대만 등은 한약제제 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인정, 90년대부터 한약제제 정책 도입 및 연구개발 투자
- 중국 : 중약 중심으로 천연물 유래 신약개발 활발, 중약 현대화를 위해 '02년 「혁신약물과 중약 현대화 계획」을 수립, 정부 차원의 투자 확대
- 일본 : 일본의 Herbal medicine 생산량은 전 세계 생산량의 약 11% 차지
- 대만 : 191억 원 규모로 수출('09~'13년 연간 성장률 11.3%)

[표 19] 아시아 주요 국가의 천연물의약품 시장 규모 및 건강보험 급여 현황

항목	중국	일본	대만
생산규모	21조 원 ('12년)	1조 5천억 원 ('13년)	3,000억 원 ('14년)
연평균 증가율	34% ('07-'12년)	5.8% ('12-'13년)	4.1% ('12-'13년)
전체 의약품 생산 대비 비중	-	2.2%	11.8%
생산규모 대비 건강보험 급여 비중	-	1조 5천억 원	2,724억 원
건강보험 급여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약음편, 중약탕제, 중약제제의 일부 약물을 제외하고 탕약 달이는 비용까지 전액 급여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규모 전체 수준을 보험 급여가 커버 • 148종(147처방, 생약 1종)이 의료용의약품 급여 적용('0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약농축제제 400품목 이상 건강보험 적용

※ 자료: IMS health data(IMS health, 2013); 천연물의약품 연구동향(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2015); 일본 후생성, 2014; 대만 제약산업연감, 2014

■ 국내 한약제제 생산 규모는 소규모로 정체된 상황

● 한약제제 생산규모는 '13년 2,867억 원으로 '02년(3,654억 원) 이후 감소

- 제약시장 '13년 생산액(16조 1,918억 원) 대비 1.8%, 전체 제약시장 규모(19조 892억 원) 대비 1.5%로 미미한 규모

[표 20] 한약제제 생산 및 시장규모

(단위: 억 원, %)

구분		2010	2011	2012	2013
제약	생산(A)	155,696	154,403	155,607	161,918
	시장규모(B)	189,084	189,438	188,300	190,892
한약제제(C)		2,552	2,465	2,817	2,867
비중	C/A	1.6	1.6	1.8	1.8
	C/B	1.3	1.3	1.5	1.5

※ 자료: 2014년 제약산업 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4)

● 건강보험에 청구된 한약제제 약품비는 279억('14년)으로 142억('10년) 대비 약 두 배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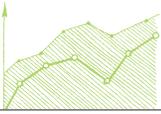
- '14년 기준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은 24.7%, 한의 총 진료비 중 한의약품비 비중은 1.2% 수준

[표 21] 건강보험 진료비 및 한의 진료비 비중

(단위: 억 원,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건강 보험 전체	총진료비(A)	436,570	460,760	482,349	507,426	545,275
	약품비(B)	127,694	134,290	130,744	132,413	134,491
	총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B/A)	29.2	29.1	27.1	26.1	24.7
한의	총진료비(C)	16,827	18,069	19,410	22,304	22,724
	약품비(D)	142	259	271	281	279
	총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D/C)	0.8	1.4	1.4	1.3	1.2

※ 자료: 2014 급여의약품 주요 통계(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5)



■ **첩약 중심의 한의약 서비스로 인해 제제 개발을 위한 유인체계 미흡**

- **첩약의 높은 가격, 중국산 한약재 중금속 검출, 복용의 어려움, 약효 표준화에 대한 의구심, 건강기능식품(홍삼, 비타민 등) 시장 성장 등 다양한 난제 직면**

* 국민들은 한의의료 개선필요 사항으로, 고가의료비(40.9%), 한약재안전성(27.6%), 치료효과의 불확실성(15.5%), 전문성 제고(9.2%) 등 요구, 한약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과학적 효과 입증(47.3%), 저렴한 가격(33.1%), 편리한 복용(15.0%) 등 요구(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4)

- **한약제제를 허가 받기는 비교적 쉬우나, 개발해도 보호되지 않아 투자 유인이 없음**

- 제약회사 유인책으로 고서를 근거로 한약제제에 대한 각종 자료제출을 면제하여 생산이 용이해졌으나, 특허(독점권 확보)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없고 R&D 투자 동기 저하 및 해외 수출 시 걸림돌로 작용
- 한약제제 시장규모가 너무 작고, 한의의료기관에서도 외면하고 있어 투자 유인 없는 규제 강화는 한약제제 생산 포기로 이어질 수 있음

- **한의약 서비스를 한약제제 중심으로 전환하여 한의약 산업 육성과 세계시장 진출 추진 필요**



주요내용

1 의약품 수준 허가 제품 보호

① 신규 한약제제 권리 보호

- 중국의 중약품중보호제도와 같이 품질이 안정적이고, 효과가 우수한 품목에 대해 특허 외에 별도로 등급을 부여, 일정기간 독점생산권을 보장해주는 제도 도입
- 건강보험 수가 인센티브로 제약회사의 생산 유인 제고

2 품질관리에 투자한 한약제제에 대한 수가 차등화로 인센티브 부여

① 기존 한약제제 품질균일성 자료 제출, 제형 현대화 등에 투자한 경우 수가 차등화를 통해 생산 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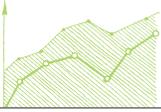
3 한약제제 연구개발 및 연구지원 공공인프라 구축 지원

① 한약제제의 새로운 효능을 이용한 신약, 효능이 강화된 양·한방 복합제제 등 블록버스터 한약 개발을 위한 기반 조성

- 한약제제의 새로운 효능 및 조성 발굴
- 한약제제 및 성분을 이용한 복합제제 개발

② 건강보험용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 사업

- 휴대와 복용이 편리한 다양한 제형(연조엑스제, 정제 등) 개발로 한약제제 산업 활성화
- 건강보험용 56종 기준 처방 개선 및 개선 처방의 제형 개발
 - ※ 56 처방 중 다빈도 상위 15개 처방이 80% 정도로 나머지 처방은 실제 임상에서 활용도가 높은 처방으로 대체 필요
- 건강보험용 한약제제의 제조공정 규격 및 품질기준 재정비
 - ※ 혼합엑스제 56종, 단미엑스제 68종의 공정서(KHP) 기준과 시험법 재정비



- 건강보험용 한약제제의 한의약적 효능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통해 제제 효능 확인, 지표성분 및 성분프로파일 분석을 통한 유효성 확보
- 건강보험용 다양한 단미엑스 한약제제 개발
 - ※ 단미엑스산제 68종 → 150종 정제, 연조엑스 등 다양한 단미제형을 개발하여 기준처방의 가감 및 임의처방 활성화

4 약침 규격 표준화 사업

① 약침 약제 규격 표준화 사업

- 다빈도 한의약침약제 20종 규격 표준화
- 약침약제의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 기준 설정을 통한 규격 표준화
- 약침약제의 안전성, 안정성, 유효성 평가
- 약침약제 제조 및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 약침약제의 제약화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자료 구축

5 한약재별 포제법 표준화·과학화 사업

① 한약재 포제법 표준화·과학화 사업

- 포제대상 한약재 선정 및 포제 전·후 성분변화 연구
- 포제 한약재 품질 표준화 및 기술이전
- 흡수성분 발굴 및 효력 평가(약동학적 접근)

6 제도 개선 및 지원

① 인허가 제도 개선

- 한약재 및 한약(생약)제제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의약품 허가 관리 체계 정비

② 산업계 지원체계 정비

- 한약제제 관련 산업계 활성화 방안 마련(판매 보존기간 제도 도입 등)

6.2 한약제제 활성화 기반 마련

현황

■ 한의 의료기관은 처방에 비해 낮은 수익과 품질에 대한 낮은 신뢰로 한약제제 처방에 소극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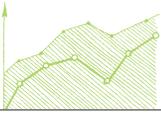
- 관련 직역 간 신뢰가 부족하여 갈등 요인이 상존
 - 한의사는 90년대 한약분쟁 이후 「한약(생약)제제」의 임의적 용어 규정과 처방권 문제로 현 제도에 불만과 불안감 증폭
 - 약사는 한의건강보험용 한약제제 취급에서 제외되면서 생약제제로 영역을 확보, 한약사와 조제권 갈등 지속
 - 한약사는 한약제제는 취급 가능하나 생약제제 취급에 대한 논란 및 일반의약품 판매 문제로 이어지면서 약사와 갈등 지속

주요내용

1 한약제제 활성화 기반 마련

① 한약제제 발전 협의체 운영

- 한약제제 개념 기준 및 허가 관리절차 연구
- 신규 한약제제, 고서 기성처방·자가조제 한약제제 개선방안 마련
- 한약제제 기준 정립 및 비중 강화 연구
- 천연물신약제도 개선방안 연구



7 한의약 R&D 지원

7.1 한의약 R&D 지원 강화

현황

■ 주요 선진국은 근거중심연구 기조에 따라 보완대체의학의 안전성 및 효능 검증을 위한 연구 투자 지속

- 유럽에서는 보완대체의학 R&D 로드맵을 수립하고 보완대체의학의 안전성 및 통합의료모델 개발 등 '20년까지 투자할 6가지 연구영역* 선정

* ① 보완대체의학의 보급(CAM prevalence), ② 시민들과 보완대체의료 제공자의 니즈와 태도(Needs and attitudes of citizens and providers), ③ 보완대체의학의 안전성(CAM safety), ④ 비교효과연구(Comparative effectiveness research), ⑤ 맥락의 영향과 의미(Effects of context and meaning), ⑥ 보완대체의학의 통합 모델(Models of CAM integration)

- 미국의 국립통합의학연구소는 보완대체의학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근거기반 연구 주도
 - 천연물 제품 관련 연구 : 시스템생물학적 접근법을 활용한 생물학적 효과, 작용기전, 안전성 규명, 중개연구와 선별된 제품의 타겟형 대규모 임상평가 등 수행

* 미국 국립보건원의 보완대체의학 관련 R&D 예산 규모 : '14년 3.67억 달러(29개 기관)

- 중국의 중의약 R&D 예산은 최근 10년간 3배 이상 증가, 중의우세병종 및 중성약 신약개발 등 중의약 확대와 신제품을 통한 신시장 창출을 위한 연구 지속

- '05년부터 중의우세병종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총 2,060만 위안을 투입했으며 이후 3차례에 걸쳐 103개의 우세병종 선정*(한국한의학연구원, 2014)

* 2형 당뇨병, 강직성척추염, 만성 B형간염, 기관지천식, 만성위축성 위염, 비염 등이 선정되었으며 최근 연구되고 있는 병종은 중풍, 요통, 위안통 등('10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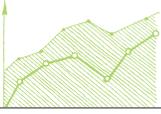
- 사스(SARS)와 조류인플루엔자 등 전염병에 대한 중의약의 치료효과를 바탕으로 중의 예방보건 서비스체계 및 중의예방보건서비스 과학기술체계 구축
 - * '13년 국가중의약관리국은 「중의약 예방보건(치미병) 과학기술 창신강요」를 발표, 예방보건사업의 기반을 확립하고 기술 체계를 구축
- 국가기본약물목록의 중약자원 이용보장 및 보전을 위해 상용약재, 도지약재, 멸종위기약재의 유전자원창고 건설 추진 중

■ 한의약분야 연구개발 투자 확대* 중이나 절대적인 금액은 여전히 미흡

- '14년 부처별 한의약 R&D 총 투자금액은 832.9억 원*
 - * 정부 총 R&D 투자 규모 대비 약 0.5%, 보건의로 R&D 대비 약 6.4% 비중(한국한의약연구개발간위원회, 2014)
-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을 통해 86억 원('14년) 규모로 치료기술개발, 임상 인프라 구축 등 추진(한국한의약연구개발간위원회, 2014)
- 양·한방융합기반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융합형 신약 개발 및 치료제 개발 등 한의약 확대 및 중개연구 등 추진

■ 한의약 관련 R&D의 확대에 따라 연구기획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한의약의 특성에 맞는 연구방법론 개발과 주변 학문의 수용과 융합을 통한 발전이 요구

- 한의약 R&D 분야가 다양해지고 규모가 커지면서 기존 보건의로 및 생물학적 방법론 도입 활성화
 - 과학적이면서도 한의약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방법론 구축 필요
- 빈약한 연구방법론 및 한의약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연구방법론 혼재
 - 한의약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방법론에 대한 고민 없이 생물학적 혹은 보건의로 방법론을 수용
 - 한의약 관련 체계적 문헌고찰에서 효과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이 대부분으로, 그 이유 중 하나는 연구방법론이 약하다는 결론이 다수 존재



- 고서를 근거로 활용되는 한약제품 개발은 수출 시 과학적 신빙성이 부족, 한약자원의 산업화, 세계화를 위해서는 기초 임상연구가 반드시 필요
- 한의약에 대한 유전체 연구 자료가 부족하고, 기 구축되어 있는 유전체사업단은 한의영역과의 역할 공조 미미

주요내용

1 한의약 R&D 사업의 지원 강화

① 제품화 개발 지원

- 한약제제, 한의 의료기기 등 제품 개발을 위한 비임상·임상연구 지원

② 근거창출 중개·임상연구 지원

- 과학적 근거 창출을 위한 중개연구, 임상연구 및 국제공동연구 등 추진
- 우수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의약 보장성 강화 연계

③ 한의약 임상 인프라 지원

- 임상연구 및 임상시험 활성화를 위한 지역한의임상센터(경희대, 원광대, 대전대) 지원 및 지역권을 고려하여 확대 추진
- 한의약육성법에 근거한 ‘한방임상센터’ 지정 추진 및 지원·활용 확대

④ 양·한방융합기반기술개발사업 확대

- 양·한방융합기술개발 과제 지원 확대
- 협진 우수 질환 발굴 및 치료기술 개발

2 한의약 국가 R&D 사업의 구심점 강화

① 「한의약 R&D 발전협의체」 기능 강화

- 정기적 운영으로 한의약 관련 부처 및 유관기관(산학연) R&D 계획, 정책 등 협의 기능 강화

② 부처 간 연계사업 확대

- 다부처 R&D 사업 기획 및 수행

* 한약재산업육성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부처 사업('15년 식약처 주관)

3 신규 수요를 반영한 연구 투자 확대

① 감염병·전염병 관련 연구 지원

- 감염병·전염병에 대한 한의약적 접근 방안 검토 및 국외 네트워크 구축
- 항바이러스 효과 한약재 개발 등 유행 감염병·전염병 비임상연구 지원
- 주기적·일시적 감염병·전염병에 대한 한의약적 임상연구 진행

② 신규 수요 분야 연구 투자

- IT 융합 연구, 건강증진 연구, 미병 연구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연구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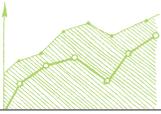
4 한의약 연구자에 대한 연구 역량 강화

① 한의학 관련 국내·외 공동연구 지원 및 기반 확대

- 한의학 및 의과학자의 공동연구 기반 확대
- 해외 우수연구자와의 공동연구 지원

② 한의 기초분야 연구지원을 통한 우수 한의과학자 양성

- 한의 기초연구 분야 연구 확대



7.2 한의약 기반 제품개발 및 지원

현황

■ 인구증가 및 고령화로 건강수명 연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외과적 치료와 항생제 사용을 지양, 천연물 기반 치료 및 제품 수요 증가

- 미국의 천연물 건강보조식품 및 일반의약품 시장은 '16년까지 200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며, 기존 의료비 대비 저렴한 비용, 안전성을 강점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한국바이오협회, 2014)
- 한약재·전통처방을 기반으로 한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관련 산업 성장
 - 국내 건강기능식품 생산규모는 '12년 1조 4천억 원 도달
 - 한방화장품시장 규모도 꾸준히 성장하여 '11년 기준 전체 화장품 생산량의 23% 차지
 - ※ '11년 전체 화장품 생산실적 6조 3,856억 원, 한방화장품 생산실적은 1조 5,169억 원
 - 중국 화장품 시장 증가 추세와 함께 한국 화장품의 중국 진출도 가속화
 - ※ 2014년 중국의 한국 제품 수입규모는 13억 위안, 2012년부터 3년간 14% 증가(한국무역협회)

■ 전통의학을 기반으로 안전성과 효능을 검증한 제품개발과 한약(재) 응용제품 시장의 성장 지원 필요

- 한약재는 의약품이나 식품에 사용되는 경우 각각 적용되는 규제 기준과 함유되는 성분 및 함량이 상이,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도 표준화된 기준과 규격 부재
- 원료부터 제품 생산까지의 표준화 및 규격화가 필요, 이를 기준으로 향후 응용제품 개발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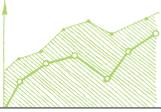
■ 한약제제는 기성한약서 처방만 허가되고 있으며, 의료기기는 시장 규모가 영세하여 제품 개발에 대한 산업적 동기 부여 부족

- 다양한 원료, 가공법, 첨단 과학기술을 이용한 한약제제 제품개발 허가 제도 마련 필요
 - 한약제제는 건강보험 급여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기업의 한약제제 개발 동기 부여 미비
 - 한의약 산업계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 필요
- 한의 의료기기의 경우 보험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현재는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동기가 부족, 의료기기 시장 규모를 확대하여 연구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

참고

◆ 중의약 산업 현황

- 중의약산업은 정부의 육성지지와 함께 연간 30%의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중의를 기반으로 추출물부터 중성약까지 다양한 제품 수출
- 나고야의정서 대응 등 장기적인 중의약산업 성장을 위해 중약자원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중의약 표준화를 기반으로 한 산업성장 도모
 - 중약자원일제조사를 실시해 생태환경, 해발, 분포구역 등의 시범조사를 통한 정보 확보, 데이터베이스화 및 공유 등
 - 「중의약 표준화 중장기 발전기획강요(11-20)」를 통하여 국가표준 및 영업표준 다수 제정
 - ISO/TC249에서 용어, 한약제품, 의료기기 작업그룹별 활동을 통해 중국 산업표준을 국제표준으로 제정하기 위한 전방위적 지원 지속*
 - * 국가표준 37항목, 영업 및 영업조직표준 450항목 등
- '12년 중국 중성약 수출은 2.7억 달러로 전년대비 15% 증가
 - 중약류의 수출·입액은 전체 의약 및 보건상품 수출입 금액의 각각 5.2%, 2.2% 차지('11년 기준)
 - 주요 수출 대상국은 일본, 미국, 싱가포르이고, 수출 비중은 원료추출물, 중약재, 음편, 중성약 순으로 나타났으며 원료추출물과 중성약의 비중이 증가
 - ※ 자료 : 중국중의약동향보고서(한국한의학연구원, 2013)



주요내용

1 한약재 기반 건강기능식품 전문관리체계 수립

- ① 건강기능식품 품목 제도 관리

2 한방화장품 산업화 촉진

- ① 글로벌 화장품 육성 인프라 구축

- 화장품 해외 판매장 개척 지원 및 시장정보 제공을 통해 한방화장품을 포함한 화장품 산업 시장진출 지원

3 의료기기 산업 지원 및 활성화

- ① 한의학을 이용한 진단기기 등 의료기기 개발

- 통증에 대한 한의학적 기능 진단법 등을 응용한 통합적 진단 기술 개발

4 한의약 지역 클러스터 조성 및 확대

- ① 한의약지역혁신센터 설치 확대

- 한의약바이오 제품 임상효능시험을 지원하여 고부가가치 바이오메디컬 제품 생산 지원



IV

선진인프라 구축 및 국제경쟁력 강화

8 한의약발전 인프라 마련

8.1 한의인력 전문성 강화

현황

■ 매년 약 850~900명의 한의사가 신규 배출, '15. 6월 기준 한의사 수는 22,760명¹¹⁾
이중 전문의는 2,611명(13.75%)

- 한의사 공급 과잉 현상으로 신규 졸업자 실업을 증가, 기존 한의원 폐업 가속화
- 동시에 한의 전문의를 필요로 하는 한방병원은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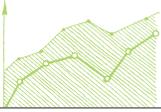
* 한방병원 수 258개(30개 이상 증가/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5)

【표 22】 한의 전문의 인력 배출 현황

과목	2015년(명)	비중(%)	증가율(%)
한방내과	964	36.92	△8.26
침구과	533	20.41	△0.23
한방재활의학과	355	13.59	5.34
한방부인과	216	8.27	0.71
한방신경정신과	159	6.08	0.81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150	5.74	0.24
사상체질과	139	5.32	0.74
한방소아과	95	3.63	0.65
합계	2,611	100.00	

※자료 : 대한한 의사협회 내부자료(대한한 의사협회, 2015)

11) 2015년 6월 심평원 의료자원(한의사 수) 통계



■ 한의학 교육과정과 배출된 한의 인력의 질적 향상 필요

● 한의사와 한의 전문의 임상훈련 차별화 필요

- 향후 전체 한의사 중 15~20%가 전문의가 될 것이 예상되는 바, 전문의 역량강화를 위한 한의과 대학 교과목 재정비 및 보수교육 차별화 방안 마련 필요

주요내용

1 역량중심의 대학 교육시스템 강화

① 한의학 교육 평가 시스템 정착

- 한의학교육평가원이 대학평가 인증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

* 한의학교육평가원이 교육부 인정을 받아야 적극적으로 평가인증 유도 가능

- 대학 인증평가 기준 개선 및 인증 독려*

* 의료법 제5조('17년 시행)에 따라 미인증 한의과 대학 한의과 졸업생들이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내용의 홍보를 통해 한의과대학의 인증 유도

② 한의사 국가시험 구조 개편

- 실제 임상 역량 강화를 위한 임상술기시험 도입 및 문제 해결형 문항 구성을 위한 국가시험 과목 구조 개편
- 임상 역량 강화를 위한 한의사 국가시험의 구조 개편 및 교육 표준화를 위한 기초한의학 종합시험의 도입
- 역량 중심의 국가시험을 위한 준비기('16~'18년, 출제자 역량 강화 및 문제은행의 점진적 교체), 이행기('19~'21년, 일정한 비율로 국가시험에 적용), 전환기('22~'24년, 실기시험 등 다양한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방법 전환)

③ 한의약 교원의 전문적인 역량 강화를 위한 한의학교육연수원 설립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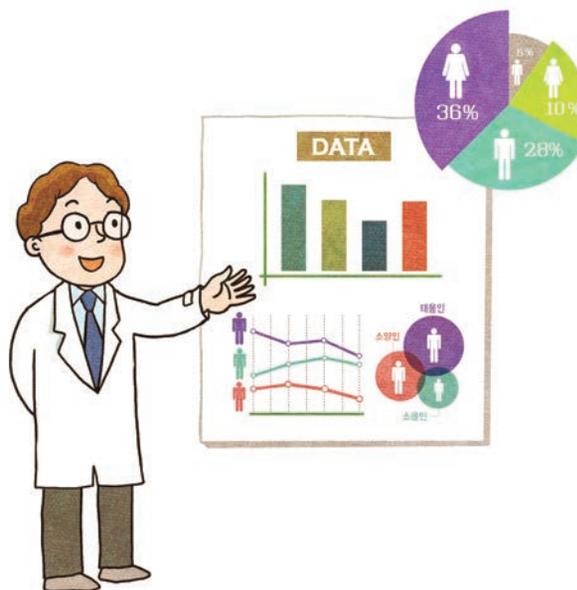
- 한의약 분야 교원들 대상 교수방법론 강좌, 표준적인 임상술기교육 연수 등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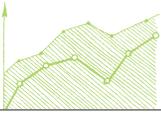
- 역량 중심 한의학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법, 강의계획서 작성, 합리적인 평가법 및 출제법 등의 연수 제공
-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 따른 기본교육 및 졸업 후 교육 및 보수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수를 대상으로 지식, 술기 및 태도 교육 시행
 - ※ 서울대학교 내 의학연수원(의학분야), 치의학연수원(치의학분야)을 통해 전공 교수들 대상의 상시적인 연수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졸업 후 보수교육 내실화

1 보수교육 내실화를 위한 구조개선

- 전문 직업성 평생교육(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CPD) 개념을 실현하는 보수교육 평가시스템 도입 및 이수평점 개선





8.2 한의학 지식정보화 및 국가자원화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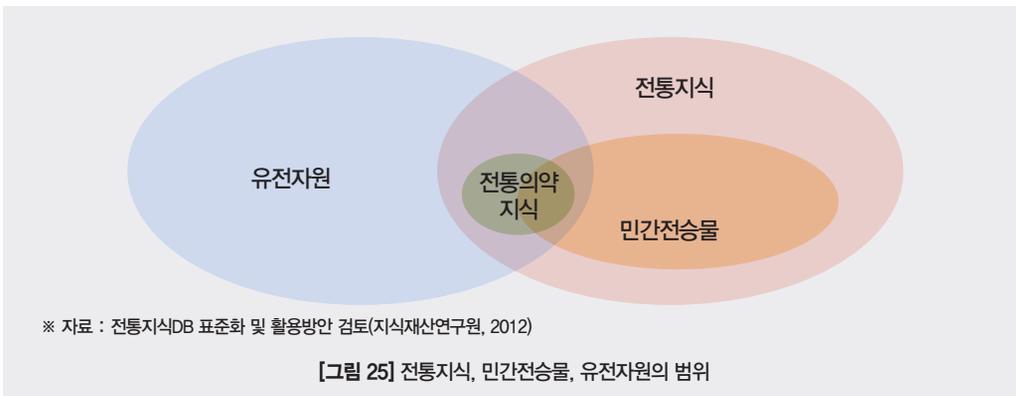
- 한의학 이론의 현대적 응용 및 한의학 산업 발전을 위해 데이터 웨어하우스 등 한의학 정보지식자원화 필요성 증대
- 생물다양성협약(CBD),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전통지식의 권리행사 및 이익 공유에 대한 논의 진행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2)

참고

◆ 세계지식재산권기구와 전통지식의 국제적 보호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01년 각국 전통지식의 국제적 보호에 관한 논의 시작 후 '03년 전통지식문헌을 선행·기술에 포함하는 것에 합의했으며, 이후 미국, 캐나다, 호주, 인도 등은 전통지식 데이터베이스 구축 중¹²⁾

* 데이터베이스는 전통지식에 대한 합법적 접근방법을 제공하는 동시에 전통지식의 오남용을 적절하게 방지 가능(WIPO : Databases To Protect GRs, TK, Useful But Some Controversy, 2015)



12) ABS산업지원센터 해외동향, WIPO : 유전자원, 전통지식의 데이터베이스, 2015-6-29, <http://www.abs.kr/>

- **국내는 나고야의정서* 시행에 따라 전통지식자원 발굴 및 데이터베이스화 추진(각 부처), 전통자원의 지재권 보호에 대한 제도(국제특허조약 최소 문헌화 등) 마련 등을 통해 대응 방안 마련**

* 나고야의정서에서는 유전자원에 관한 전통지식으로부터 발생한 이익공유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도 자원 보유국 및 이용국간 합의가 필요함을 명시

- **전통지식의 부처별 관리 업무 기준에 따라 관련 데이터베이스 별도 구축**

- 특허청에서는 '07년부터 한의학분야에 대한 전통지식을 중심으로 한국전통지식포털* 운영 중

* 한의학 · 약학 · 식품 등 관련 논문 29,489건, 한의학 · 중의학 고전문헌 수록 약재정보 5,500건, 처방정보 20,121건, 병증 정보 및 관련 양방병증정보 12,500건, 한 · 양방병증매핑 사전 2,630건, 약재 · 처방 · 병증에서 추출한 키워드 및 국제특허 분류정보 38,121건 등¹³⁾

-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전통의학정보포털*을 운영, 한의학술논문 및 한약처방 등 탑재

* 한의학술논문 26,800건, 참고문헌 491,172건, 한의연구보고서 2,847건, 한의약통계 656건, 한약처방 35종 등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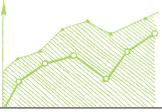
■ 한의학 관련 전통지식을 보호하기 위해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보존 필요

- '13년 「동의보감」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한 바 있으나, 「의방유취」, 「동의수세보원」 등 아직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전통지식 존재

- 「동의보감」에 이어 한의학 무형(문헌)자산에 대한 체계적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필요

13) 한국전통지식포털. <http://www.koreantk.com/ktkp2014/about/introduction.page>

14) 전통의학정보포털. <https://oasis.kiom.re.kr/main.js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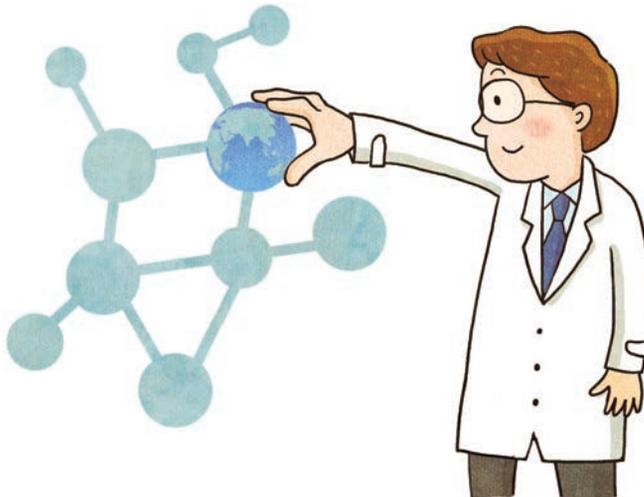
주요내용

1 한의학 지식자원 확대 구축

- ① 「동의보감」에 이어 「의방유취」등 전통의서에 대한 번역과 분석
- ② 문헌, 고문, 학술지 등에 산재된 전통지식 정보를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전통지식의 국제적 보호기반 마련
 - 체계화된 전통지식 데이터베이스를 국민에게 제공하여 전통지식의 학문적·산업적 활용 촉진

2 한의학 지식 재산권 국제 질서 대응

- ① 나고야 의정서, 세계지적재산권기구 대응
 - 진단, 침구, 체질, 포제, 제약 기술 등 무형의 한의전송기술을 발굴, 조사 및 보존사업 등을 통해 국가적 차원의 사전기술 데이터베이스 구축



8.3 한약진흥재단 정책지원 기능강화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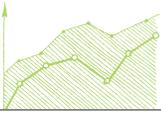
■ 한의약 세계화 및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법적·제도적 기반 조성 미흡

- 한의약 발전 및 세계화를 위한 정책 기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한의약 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법(의료법·약사법 등) 및 제도 미흡
- 한의약의 법적·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 지원 조직 필요

■ 한의약 산업 육성 관련 사업 추진 시 각 추진 주체 간 연계 부족

- 복지부·미래부·산통부·식약처 등 관계 부처에서 다양한 사업 수행
- 지역별로 한의약 산업 기관을 통해 한의약 기초연구 및 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있으나 연구 기관 간, 지역 간 협력 미흡
 - 지역별 한의산업 특성화 및 고부가가치 산업 창출을 위해 산·학·연 클러스터를 활용한 한의약지역혁신센터(RIC)*를 설립하였으나 연구기관 간 협력 미흡
- 통일된 중장기 목표 하에 투자 효율성 및 시너지 효과 극대화, 정책개발(Think-Tank) 등을 지원할 컨트롤 타워 역할 정립 필요

* 대구한의대 한방생명자원연구센터 RIC, 대전대 난치성 면역질환의 동서생명의학 연구센터, 세명대 한방바이오 임상지원센터



주요내용

1 한의약 기술 개발 및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지원(한약진흥재단, '16~)

① 한의포럼 구성·운영 및 협업 체계 구축

- 국내·외 관련 분야별 한의약 발전 방안에 대한 전문가-현장-정부 간 정책 공론화 및 홍보체계 마련

* 정례포럼 격월(또는 분기별), 국제포럼 격년제 실시(한의학계 단체·기관과 공동)

② 국내·외 한의약 산업·정책 동향 분석 및 정보공유

- 한의 건강보험(요양급여, 약제 등), 한의약산업, 한의약 서비스(한방병원, 한의원 등) 관련 통계 생성·발간
- 한약제제 등 한의약산업 해외 진출을 위한 세계전통의약 국가의 교육과정, 면허발급절차, 면허범위 등 면허제도 비교 분석 및 법령 해석(격년 발간)



9 한의약 국제경쟁력 강화

9.1 한의인력 국제교류 및 한의약 세계화 활성화 지원

현황

■ 국내 대학, 병원 등을 중심으로 전통의학 인력교류 및 한의의료 관광객 증가 등 한의약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개별 사업 위주로 성과축적, 성공모델 구축 등 부재

- 국내 한의의료 관광객은 '10년 4,191명에서 '13년 9,554명으로 지속적 증가
- 국내 한방병원의 해외 진출도 지속적 증가*

* 국내 한방병원 진출 '13년 미국 21개, 중국, 일본, 캐나다, 카자흐스탄 각 1개

- 한의약 세계화 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전문가 국제역량 향상 지원 중
- WHO 본부(HQ) 및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WPRO)에 국내 전문가 파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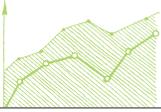
■ 한의약 교육, 임상, 서비스별 인력교류 및 협력 모델 구축이 필요

- 한의약 국제전문가의 체계적인 관리와 국제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표준화된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 부재
- 한의약 인력 교류 및 해외 교육이 산발적으로 수행, 총괄 관리 체계가 필요

■ 한의약 해외 진출을 위한 한의치료 기술 및 한약 등에 대한 콘텐츠 마련 필요

- 한의서 번역 작업을 통한 한국 한의약 세계화 기초 작업 필요
- 한의약 수요가 있는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의 한의용어 다국어 번역 작업 필요

* 중국은 '중의침구'를 세계무형유산에 등재하여 침구분야 지적소유권 독점 시도



참고

◆ 중의약의 국제교류 현황

• 중국은 관련 학회를 중심으로 비아시아권 국가 간 교류 활동 전개

- 세계침구학회연합회(WFAS)*, 세계중의약학회연합회(WFCMS)** 운영을 통해 학술교류 및 표준화 활동 전개

* 세계침구학회연합회(WFAS) : '97년 중국에서 설립된 침구 관련 학회로 '13년 기준 51개국 149개 학회가 가입되어 있는 WHO와 비정부단체 협약에 의한 국제 기구 연합회

** 세계중의약학회연합회(WFCMS) : '07년 중의약의 품질 향상과 발전을 도모하고 의학계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로 27개국을 중심으로 운영

주요내용

1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16~)

①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역량 강화

-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특화프로그램 개발 지원, 한의약정책위원회 및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포럼 운영,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상시 컨설팅 운영 등을 통한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도모

② 전략적 마케팅 홍보

- 한의약 해외 홍보회, 한의약 브랜드 홍보, 한의약 홍보관 운영 등을 통한 한의약 해외 인지도 향상

2 한의약 해외진출 촉진

① 국내 전문가 대상 한의약 해외 진출 전문가 양성

- 한의약 국내 전문가 대상 해외 진출 교육 매뉴얼 개발 및 훈련 프로그램 구성 운영

② 해외 전문가 대상 한의약 전문가 양성

- 한의약 해외 인지도 제고를 위해 해외 전문 인력 대상의 인·아웃 바운드 형식의 교육 훈련 실시 및 다언어 교재 개발

③ 해외 거점센터 설치를 통한 네트워크 강화

- 러시아 의과대학 내 한의사 파견, 카자흐스탄 문화원 내 한의약 프로그램 운영, 미국 학술 대회를 통한 현지 한의사 네트워크 강화

④ 총괄 컨트롤 타워 설치를 통한 국내·외 네트워크 관리 강화

- 한의약 해외 진출 총괄 기관 구성을 통해 한의약 정보공유, 최신 국제동향 파악, 공동학술대회 개최 등을 하고, 국내·외 네트워크 간 유기적인 협조 체제 강화

⑤ 한의약 산업 해외 진출 지원 제도 마련

- 한의약 해외 최신 국제 산업 동향 모니터링 실시를 통해 한의 산업 정책 수립 지원

3 한의약 ODA 확대

① 해외 한의약 봉사활동 다각화

- 기존 아시아 위주 국가 봉사활동에서 남미 등 봉사활동 다변화 노력을 통해 한의약의 국제적 인지도 제고

② 한의약 해외공공보건사업 확대

- 기존 금연, 비만 프로그램 이외에 수원국의 보건의료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한의약공공보건 프로그램 보급을 통한 한의약 현지화 노력

4 한의약 국제브랜드 제고

① 한의약 제품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스토리텔링 사업

- 「동의보감」 등 우수한 한의약 성과에 대한 다양한 스토리텔링을 통한 우수성 홍보 및 한의약 대표 이미지 개발

② 한의약 고유 콘텐츠 및 기본서, 교재 등 번역지원 자료 선적

- 「동의보감」영역에서 축적된 인력인프라 활용 콘텐츠 개발
- 한의서 번역을 위한 다국어 번역시스템 구축 및 병증·치료기술 용어 사전 편찬



9.2 한의 국제표준화 기반구축

현황

■ ISO(국제표준화기구) 내 전통의학과 관련된 기술위원회(ISO/TC249,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신설('09. 4월)

- ISO/TC 249에 한국, 중국, 일본, 인도 등 총 35개 회원국이 참여

* 국제표준 출판완료 5건('15.11월기준) : ① Ginseng seeds and seedlings, ② Sterile acupuncture needles for single use, ③ Determination of heavy metals in herbal medicines used in TCM, ④ Herbal decoction apparatus, ⑤ General requirements of moxibustion devices



- 한국은 ISO의 전통의학분야 국제표준화 활동에 참여하여 국제 표준 제안
 - '14년 보건복지부는 「한의학표준화전략로드맵(2015-2024)」을 수립, 표준화 추진을 위한 기틀 마련
- ISO/TC215¹⁵⁾에서도 한의학 의료정보 관련 표준화 진행

15) 의료정보학 위원회(Technical Committee 215): ISO에 설립된 기술위원회 중 하나로 보건의료 정보학(health informatics) 분야의 표준화를 목표로 활동

■ WHO는 '14년 발간한 「전통의학전략 2014-2023」에 따라 임상의료정보 표준화, 침구 경혈 표준화, 한약 표준화, 임상진료지침 등의 활동 중

- WHO는 전통의학 국제분류체계(ICTM) 프로젝트를 진행, 국제질병분류(ICD) 11차 개정판에 전통의학 질병명과 변증명을 신규 챕터로 포함하는 작업 진행

* ICTM: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Traditional Medicine, ICD: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주요내용

1 한의약 표준화 전략 기획·실행('16~'18)

① 한의약표준화전략로드맵*(2015-2024) 실행 모니터링

* 4대 분야(용어, 한약, 의료기기, 서비스) 기술 표준에 대한 우선순위 및 추진 전략

- 4대 분야에 대한 표준화 아이템 별 실행 계획 수립 및 국내·국제 표준안 마련

2 전통의학 국제표준 제정 참여('16~'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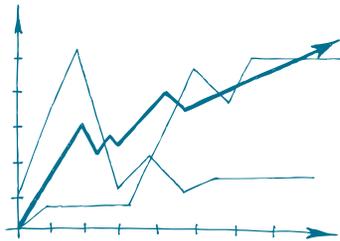
① ISO, WHO의 국제표준 제정 참여 및 표준안 제안

- 국제표준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국내 한의약 관련 산업계를 중심으로 ISO TC/249, 215 참여 및 표준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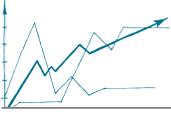
- 한의계 국제표준화 전문가 양성 및 한의사보수교육을 통한 표준 보급

② 한의약 국제표준 선도를 위한 국제 공조 강화

- 한의약 초청연수, 국제 포럼, WHO 전통의학 지원 등을 추진하고, 해외 국제 표준 전문가와의 교류를 통해 한의약 우호적 분위기 조성



부 록



참고 1.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과제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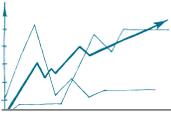
한의료준임상진료지침 개발 · 보급을 통한 근거강화 및 신뢰도 제고

1 한의료준임상진료지침 개발

추진 내용	주관부처
1-1. 한의료준임상진료지침 개발	
1 한의료준임상진료지침 대상질환 선정	
① 대상질환 선정	복지부
2 한의료준임상진료지침 개발	
① 지침개발단 및 실무작업반 운영	복지부
② 체계적 문헌고찰 등 문헌연구	복지부
3 한의료준임상진료지침 인증 및 미포함 진료행위 검증	
① 지침의 인증 및 지침 관련 진료행위 검증	복지부
1-2. 한의료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위한 임상연구지원	
1 근거창출을 위한 임상연구 병행	
① 근거기반 연구 및 임상연구 수행	복지부
② 기개발 지침 검토 · 인증 후 근거창출 임상연구 수행	복지부
③ 건강보험 급여를 위한 경제성 평가 고려 임상연구 설계	복지부
2 한의료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위한 기반 마련	
① 한의진단기술 표준화를 위한 지표 발굴	복지부
② 한의진단기술 임상근거 확보	복지부
③ 한의임상연구방법론 탐색 · 개발 및 확산 등 기반 구축	복지부

2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보급 · 확산

추진 내용	주관부처
2-1.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확산	
1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교육 및 홍보	
①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근간으로 한 한의과대학 공통교육과정 개발 및 운용	복지부
② 한의사 졸업 후 교육과정 및 공공보건사업 반영	복지부
③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홍보 및 제공	복지부
2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	
① 한의 표준 진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 추진	복지부
2-2.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지원체계 구축	
1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개발사업단(가칭) 설립	
①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개발사업단 설립	복지부
② 지침개발단 구성 · 운영	복지부
③ 운영위원회 및 검토 · 평가위원회 구성	복지부
2 임상진료지침 정보센터 설치	
① 임상진료지침 정보센터 설치 · 운영	복지부
3 지역한의임상센터 활성화 지원 및 확대	
① 지역한의임상센터 활용	복지부
② 임상연구지원센터 설치 · 운영	복지부



II

보장성 강화 및 공공의료 확대를 통한 한의약 접근성 제고

3 한의약 보장성 강화

추진 내용	주관부처
3-1. 한의약 보험급여 제도 개선	
1 한의약 건강보험 확대 및 수가개발	
① 다양한 수가개발 및 급여 확대	복지부
② 보험급여 한약제제 합리적 개선	복지부
③ 한의약 보장성 확대 추진체계 구축	복지부
④ 비급여 의료비 관리체계 구축	
2 자동차 보험급여 제도 개선	
① 자동차보험 급여항목 개선	복지부
3-2. 양·한방 협진 활성화	
1 양·한방 협진 활성화 및 협진체계(수가) 마련	
① 의료기관 유형별 협진 모델 분석 및 표준 모델 도출	복지부
② 협진 비교효과연구, 경제성 평가연구를 통한 협진 수가 신설 등 개선안 마련	복지부

4 한의약 공공보건의료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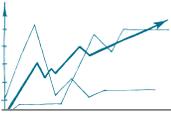
추진 내용	주관부처
4-1 한의약 공공보건의료 강화	
1 한의약 공공의료서비스 역할 강화 지원	
① 국공립병원 내 한의약 보건의료 기능 강화	복지부
② 한의약 공공보건의료 지원 근거 마련	복지부
2 지역사회 한의약건강증진사업 활성화 지원	
①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지원체계 마련	복지부
② 한의약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복지부
③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우수 보건소 인증 및 기술지원	복지부
④ 보건소 한의약건강증진분야 사업담당 인력 확충 및 역량 강화	복지부



기술혁신과 융합을 통한 한의학 산업 육성

5 한약(재) 품질관리 및 유통체계 강화

추진 내용	주관부처
5-1. 한약자원 생산·보관·관리 체계 구축	
1 한약자원 기술개발	
① 한약자원 감별기술 개발	환경부, 미래부
② 한약재 자원 수집 및 보존	농진청
③ 지역 적응성 분석 및 한약재 자원 표준재배기술 개발	농진청
2 토종 한약자원 국가관리 체계 구축	
① 토종 한약자원의 재배 표준화	복지부
② 토종 한약자원의 현대 과학화, 규격 표준화	복지부
③ 한의약소재 통합정보 검색시스템을 통한 연구 활성화	복지부
3 한약(재) 독성연구 인프라 구축	
① 토종 한약자원 안전성 평가(독성평가) 시설 구축 및 장비 확충	복지부
② GLP 기관 인증	복지부
③ 토종 한약자원 안전성 평가 자료 확보	복지부
4 우수 한약재 생산 촉진	
① 우수품종 육성 및 보급	농식품부
② 우수하고 안전한 한약자원 생산 확대	농식품부, 농진청
5-2. 한약(재) 제조·유통관리체계 선진화	
1 한약재 GMP 전면시행에 따른 관리 강화 및 제도 정착	
① 한약재 GMP 전면시행에 따른 관리 강화 및 제도 정착 지원	식약처
② 한약재 제조·유통 관리 강화	식약처
2 한약공정서 개정 및 품질규격의 국제화	
① 한약공정서 단일화 및 한약(생약) 기준규격 시험법 개선	식약처
3 원외탕전실 관리강화	
① 원외탕전실 실태 파악 및 관련 지침 개정	복지부
② 원외탕전실 조제한약의 제조 및 품질관리 방안 마련	복지부



6 기술혁신을 통한 한의약 상품화 지원

추진 내용	주관부처
6-1. 한약제제 개발 및 특화 지원	
1 의약품 수준 허가 제품 보호	
① 신규 한약제제 권리 보호	복지부
2 품질관리에 투자한 한약제제에 대한 수가 차등화로 인센티브 부여	
① 수가 차등화 통한 생산 유인 제고	복지부
3 한약제제 연구개발 및 연구지원 공공인프라 구축 지원	
① 블록버스터 한약 개발을 위한 기반 조성	복지부
② 건강보험용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 사업	복지부
4 약침 규격 표준화 사업	
① 약침 약제 규격표준화 사업	복지부
5 한약재별 포제법 표준화·과학화 사업	
① 한약재 포제법 표준화·과학화 사업	복지부
6 제도 개선 및 지원	
① 인허가 제도 개선	식약처
② 산업계 지원체계 정비	복지부
6-2. 한약제제 활성화 기반 마련	
1 한약제제 활성화 기반 마련	
① 한약제제 발전 협의체 운영	복지부

7 한의약 R&D 지원

추진 내용

주관부처

7-1. 한의약 R&D 지원 강화

1 한의약 R&D 사업의 지원 강화

① 제품화 개발 지원	복지부, 미래부
② 근거창출 중개·임상연구 지원	복지부
③ 한의약 임상 인프라 지원	복지부
④ 양·한방융합기반기술개발사업	복지부

2 한의약 국가 R&D 사업의 구심점 강화

① 「한의약 R&D 발전협약체」 기능 강화	복지부
② 부처 간 연계사업 확대	복지부

3 신규 수요를 반영한 연구 투자 확대

① 감염병·전염병 관련 연구 지원	미래부, 복지부
② 신규 수요 분야 연구 투자	미래부

4 한의약 연구자에 대한 연구 역량 강화

① 한의학 관련 국내·외 공동연구 지원 및 기반 확대	복지부
② 한의 기초분야 연구지원을 통한 우수 한의과학자 양성	복지부

7-2. 한의약 기반 제품 개발 및 지원

1 한약재 기반 건강기능식품 전문관리체계 수립

① 건강기능식품 품목 제도 관리	식약처
-------------------	-----

2 한방화장품 산업화 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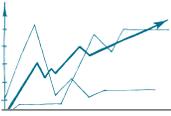
① 글로벌 화장품 육성 인프라 구축	복지부
---------------------	-----

3 의료기기 산업 지원 및 활성화

① 한의학을 이용한 진단기기 등 의료기기 개발	산통부, 복지부
---------------------------	----------

4 한의약 지역 클러스터 조성 및 확대

① 한의약지역혁신센터 설치 확대	산통부
-------------------	-----



IV

선진인프라 구축 및 국제경쟁력 강화

8 한의약 발전 인프라 마련

추진 내용	주관부처
8-1. 한의인력 전문성 강화	
1 역량중심의 대학 교육시스템 강화	
① 한의학 교육 평가 시스템 정착	복지부
② 한의사 국가시험 구조 개편	복지부
③ 한의학교육연수원 설립 추진	복지부
2 졸업 후 보수교육 내실화	
① 보수교육 내실화를 위한 구조개선	복지부
8-2. 한의약 지식정보화 및 국가자원화	
1 한의약 지식자원 확대 구축	
① 전통의서(의방유취 등) 번역·분석	복지부
② 전통지식정보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한 국제적 보호기반 마련	특허청
2 한의약 지식 재산권 국제 질서 대응	
① 나고야 의정서, 세계지적재산권기구 대응	복지부
8-3. 한약진흥재단 정책지원 기능강화	
1 한의약 기술 개발 및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지원(한약진흥재단)	
① 한의포럼 구성·운영 및 협업 체계 구축	복지부
② 국내·외 한의약 산업·정책 동향 분석 및 정보공유	복지부

9 한의약 국제경쟁력 강화

추진 내용

주관부처

9-1. 한의인력 국제교류 및 한의약 세계화 활성화 지원

1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①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역량 강화	복지부
② 전략적 마케팅 홍보	복지부

2 한의약 해외진출 촉진

① 국내 전문가 대상 한의약 해외 진출 전문가 양성	복지부
② 해외 전문가 대상 한의약 전문가 양성	복지부
③ 해외 거점센터 설치를 통한 네트워크 강화	복지부
④ 총괄 컨트롤 타워 설치를 통한 국내·외 네트워크 관리 강화	복지부
⑤ 한의약 산업 해외 진출 지원 제도 마련	복지부

3 한의약 ODA 확대

① 해외 한의약 봉사활동 다각화	복지부
② 한의약 해외공공보건사업 확대	복지부

4 한의약 국제브랜드 제고

① 한의약 제품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스토리텔링 사업	복지부
② 한의약 고유 콘텐츠 및 기본서, 교재 등 번역지원 자료 선정	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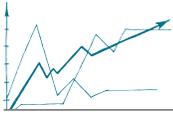
9-2. 한의 국제표준화 기반구축

1 한의약 표준화 전략 기획·실행

① 한의약표준화전략로드맵(2015-2024) 실행 모니터링	복지부
----------------------------------	-----

2 전통의약 국제표준 제정 참여

① ISO, WHO의 국제표준 제정 참여 및 표준안 제안	식약처
② 한의약 국제표준 선도를 위한 국제 공조 강화	식약처



참고 2.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신 분들

구 분	소 속	성 명
기관 및 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국립재활원	손지형
	대한한약사회	배재형
	대한한의학회	송호섭
		이승덕
	대한한의사협회	김지호
		김태호
		이진욱
		전은영
		조선영
		조희근
	대한한방병원협회	이진호
	소비자시민모임	황선옥
	연합뉴스	김길원
	전남한방산업진흥원	함성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은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강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박재산
정 희		
한동우		
홍현화		
한국한방산업진흥원	김경한	
	신흥묵	
	이창민	
	이화동	
한국한의학연구원	문진석	
	신현규	
	최선미	
산 업 계	경서기계	윤태문
	녹십자	유영효
	대요메디	강희정
	동방메디컬	곽동렬

구 분	소 속	성 명
산 업 계	사임당화장품	윤경섭
	아모레퍼시픽	조가영
	옴니허브	김남훈
	정우신약	백흥영
	한국콜마	조병현
	한풍제약	조형권
학 계	경희대학교	고성규
		김남일
		김지혜
		김태훈
		김현호
		박이준
		양응모
		이은경
	관동대학교	차웅석
		박태용
	대구한의대학교	유왕근
	대전대학교	박선주
		정인철
	동국대학교	박선동
	동신대학교	김재홍
	부산대학교	권영규
		김남권
		신병철
		임병목
	상지대학교	남동현
안효진		
이선동		
우석대학교	주영승	
원광대학교	강연석	
	김윤경	
	박성주	
	홍승헌	
차의과대학교	이신호	

제3차

한의학육성발전 종합계획

2016-2020

MINISTRY OF HEALTH &
WELFARE

발행일 : 2016년 6월 (1판 1쇄)

발행처 : 보건복지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10동)

편집처 : 한국한의학연구원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672

인쇄처 : 신진기획인쇄사 / Tel. (042)638-7887

제3차

한의학육성발전 종합계획

2016~2020

MINISTRY OF HEALTH &
WELFARE



보건복지부
관계부처합동